대구광역일보

1996년 7월 11일 창간 제 3779호 대표전화 (053)253-0000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www.dgy.co.kr 대구 3~6℃ 경북 1~3℃ 단기 4349년(음력 11월 29일) 2016년 12월 27일 화요일

“대구통합공항 성주 이전, 대구 표심잡기용 정책”

성주군 용암·선남면 등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K2 군공항 이전 반대 성주모임 회원들이 26일 오전 성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성주를 포함해 군위, 의성, 고령, 대구 달성 등 5곳을 대구공항 통합 이전 유력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날 집회를 가진 성주군민들은 27일 국방부 공항 이전 책임자들의 성주군청 방문에 맞춰 집회를 연다.

공항이전반대성주모임 대구통합공항 유치반대

성주군민 민심이 또 한번 폭발했다.

국방부가 최근 대구공항 통합이전 예비 후보지에 성주군을 포함시킨게 이유다.

성주군민들은 이같은 발표에 “정권 유지와 대구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성주군 농민회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등으로 구성된 K-2 군공항 이전 반대 성주모임(이하 공항이전반대성주모임)은 26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통합공항 유치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의 ‘K-2·민간공항 합동 이전 지시’ 이후 이전 계획이 속전속결로 진행돼 왔다”며,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밝혀진 여러 비리처럼 국가 방위 차원과 관계없이 정권을 유지하고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항이전반대성주모임은 주민 동의 절차없이 일부 지역단체들을 중심으로 공항 유치작업을 진행하는 등 성주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에 이어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 7월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170일 가까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주지역이 K-2 군공항 이전 적격지라는 소문이 돌더니 급기야 성주군 노인회를 앞세워 유치 찬성 서명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성주군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21일 성주가 통합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성주군수에 대해 K-2 군공항 유치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는 지난 21일 성주를 포함해 군위, 의성, 고령, 대구 달성 등 5곳을 대구공항·K-2 통합이전 후보지로 선정, 발표했다.

조여은·박노균 기자

유승민 “대구의원 3명 탈당 접촉” 잘 될까?

조원진, 본인 모두 부인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탈당 가능성 언급 행동
있을 수 없는 일 ‘일침’

유승민 의원

조원진 의원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이 대구·경북지역 의원들 가운데 탈당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로 김상훈(대구 서구), 곽대훈(대구 달서갑),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 등을 거론한데 대해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유 의원은 지난 25일 당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구 사무소에서 가진 탈당 관련 설명회에서 거론한 3명의 의원들에 대해 “지난번 총선에서 ‘진박(진짜 친박근혜)’ 공천과는 거리가 있었던 분들이어서 최대한 열심히 접촉 중이다”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은 26일 “언론보도를 보고 사실 확인을 위해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모두 탈당가능성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탈당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권 지지자들을 제외한 보수정당 지지자 중에는 탈당 후 신당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더 많다”며, “각각의 의원들이 이런 지역 여론에 따라 탈당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본인들에게 묻지도 않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민들의 명령은 당에 남아 당을 개혁하든 인적청산을 하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라며, “이 명령을 거부하고 나가려면 다른 의원들에게 조급하게 매달리지 말고 그냥 본인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30여 명은 27일 오전 10시 분당을 선언하고 중앙당에 일괄 탈당계를 낼 계획이다.

이들은 분당과 동시에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원내대표 선출 등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를 할 예정이며, 창당일은 1월24일로 확정했다.

조일래 기자

“검찰, 비리 관계자 전원 구속하라”

대구 희망원대책위
검찰은 지금이라도
제기된 의문 해명
향후 수사계획 알려
국민신뢰 회복 먼저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대책위원회가 26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희망원 생활인 과다사망과 은폐, 강제노동·폭행·갈취·횡령 등의 의혹으로 공분을 산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관계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대책위원회는 26일 대구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봐주기식 판결’로 무마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로 비리 성직자 등 전원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대구시립희망원의 비리로 수용시설의 민낯이 드러나고 검찰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지 어느덧 석 달째에 접어들었다”며, “검찰이 36년간 천주교유지재단이 운영해 온 희망원에 대한 비리의 썩은 깊은 뿌리를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희망원 회계과 전 직원 이 씨는 총괄원장신부인 배 씨에게 비자금자료를 폭로하겠다며, 수표로 1억2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지만, 지난 23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라는 약소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며, 말했다.

이어 “해괴한 부분은 선고가 있기 일주일 전 원장신부 배 씨가 오히려 갈취한 이 씨를 용서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배 씨는 비리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데 희망원 내 비자금조성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거금을 마련해 건넬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배 씨가 이 씨에게 거금을 건네며, 무마시키려했던 희망원 비자금의 출처와 전체 규모, 사용처 등을 밝히기 위해선 검찰이 관계된 성직자 등 전원을 구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태도로 검찰이 사건을 수사한다면 ‘꼬리 자르기’로 비리를 덮으려는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외압이 존재한다는 의문을 강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고, 종교계에 압력에 검찰이 무릎 꿇은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검찰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제기된 의문에 대해 해명하고 향후 수사계획을 알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주형 기자

대구광역일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대구 산타 키다리아저씨

매년 연말이면 익명으로 거액의 기부를 하는 등 ‘대구 산타 키다리아저씨’로 불리는 60대 기부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나눔을 실천해 화제다.

26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사무실 밑에 와 있으니 잠깐 내려 오이소”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급히 사무실 밑으로 내려가 키다리 아저씨를 만났고 그는 차에서 직원과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은 후 “확인 해보라”는 말과 함께 봉투 한 장을 건넸다.

봉투 안에는 신문 전단지 뒷면에 쓰인 “정부가 못 찾아가는 소외된 이웃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1억2000여만 원의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감사의 뜻을 전하는 직원에게 “메모에 쓰여 있는 내용처럼 소외된 이웃을 잘 지원해 달라”라는 말을 전하고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이 60대의 키다리아저씨는 2012년 1월 처음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익명으로 1억원을 전달하며, 나눔을 시작했다.

2012년 12월 1억2300여만 원, 2013년 12월 1억2400여만 원, 2014년 12월 1억2500만 원, 지난해 12월 1억2000여만 원을 모금회 직원에게 전달했다.

키다리 아저씨가 2012년부터 5년 동안 6회에 걸쳐 기탁한 성금은 7억2000여만 원으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역대 누적 개인기부액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매년 크리스마스 즈음 찾아오는 키다리 아저씨는 대구시민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자랑이자 이제는 없어서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제보를 받습니다
053-257-0000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도 거부

최순실 "김기춘·우병우·안종범 모두 다 몰라"

**국조특위 위원들,
1시간 30분 실랑이 후
구치소서 2시간 30분간 접견
최순실 모든 혐의 부인하고
관련자 모른다고 발뺌
딸 정유라 얘기 나오자
울음 터뜨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최순실'은 26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들을 모두 모른다고 밝히는 등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순실은 이날 국조특위 여야 의원들과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가량 현장촬영 등 문제를 놓고 대치하다가 결국 접견조사를 수용, 3시부터 2시간 30분 가량 서울구치소 수감동에서 일종의 약식 청문회를 가졌다.

▣최순실 "김기춘·우병우·안종범·김장자 등 모두 모른다"

여야 특위위원들에 따르면 최순실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들을 모두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 설립 아이디어를 최순실이 내고 전경련을 통한 모금 아이디어를 대통령이 냈느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최순실은 '박 대통령과 공모관계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기소됐는데 (검찰에서) 인정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순실은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에 관해서도 "딸은 이화여대에 정당하게 들어갔다"고 주장했고 이대 교수들에게 6개의 쇼핑백을 전달한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대 부정입학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최순실은 고개를 똑바로 들고 '그게 왜 부정입학이냐'며, 항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독일에 8000억 원대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독일에 재산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한 푼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 남편 정윤회와 함께 '유베리'라는 회사를 왜 설립했느냐는 질문에도 "모르는 회사다. 처음 듣는다"고 부인했다.

최순실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 PC'와 관련해서도 "나는 노트북을 사용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2012년에 태블릿 PC를 처음 봤고, 그 다음부터는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줄도 모른다고 했다"고 밝혔다.

반면, 최순실은 불리한 질문에는 모르쇠와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세월호 참사 당일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2014년 4월 16일 그 일이 어떻게 기억이 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옷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의상실을 언제부터 운영했느냐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누구의 돈으로 운영했느냐는 질문에도 최순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본인이 죽어서라도 박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냐는 질문에도 최순실은 답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최순실을 '최 원장'으로 부른 사실도 확인됐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에 대한 감정은 어떠냐"고 묻자 최순실은 "대통령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 마음이 복잡하다"고 속내를 털어놓으면서도 '대통령에게 서운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본인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최순실은 답변을 피했다. 대통령을 가족처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최순실은 이처럼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도 '종신형을 받을 각오가 돼있다'는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안민석 의원이 "몇년형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느냐. 국민들은 종신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자 최순실은 "종신형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투덜거리며, 반발하다가도 딸 질문 나오자 울음 터뜨려

이날 접견조사 과정에서 최순실은 청문회 형식이 된 점에 불쾌감을 표현하고 투덜거리면서도 딸 정유라에 관한 질문에는 울음을 터뜨리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최순실은 이날 접견동안 수차례 "청문회에 갑자기 부르면 어떻게 하냐"고 투덜거렸다. 그는 "청문회인지 모르고 왔다"고도 수차례 말했다. 또 "잠깐 몇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왔다"고 접견조사에 응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또 "몸이 안 좋으니 나는 가야 한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느냐" 등 발언을 하며, 짜증을 부리기도 했다고 여야 의원들은 전했다.

최순실은 '그간 신나게 살아오지 않았느냐'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힐난성 질문에는 "신나게 살지 못했다"고 또박또박 반박하는 등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최순실은 다른 질문에는 한참 몸을 낮추고 울음을 터뜨리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여야 의원들은 전했다.

최순실은 최근 심경이 어떤지 국민에게 한마디 해 달라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에 "국민들께 여러 모로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건강이 어떠냐는 질문에는 "몸과 마음, 심신이 어지럽고 심경이 복잡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최순실은 딸 정유라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울음을 터뜨리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딸이 걱정되느냐, 손자가 더 걱정되느냐, 누구 때문에 더 걱정하고 있냐"고 묻자, 최순실은 울음을 터뜨렸다.

손 의원이 "딸 정유라와 박 대통령 중 당신이 구치소에 와 있는 상태에서 누가 더 상실감이 크고 어렵겠냐"고 묻자, 최순실은 울면서 "딸이죠"라고 답했다. 뉴시스

경실련, 인명진 전 공동대표 영구제명…역대 첫 사례

**"사전 상의도 없이
與 비대위원장 수락 참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동대표로 재임 중이던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대표직에서 영구제명했다.

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선월몽산·김완배·김대래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현직 공동대표가 회원들과 상의도 없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해체돼야 하는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 전 공동대표의 경실련 윤리행동강령 위반에 대해 지난 24일 새벽 긴급 주요임원회의를 열어 영구제명 조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1989년 경실련 창립 후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동대표 등 주요 임원은 경실련 활동과 함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강령 위반 시 상임집행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양혁승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인 전 공동대표의 비대위원장 수락은 촛불 민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치행위"라며, "인 전 공동대표가 구두로 사의를 표했으나, 정치적 행위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월몽산 경실련 공동대표는 "이번 일로 경실련의 가치가 많이 손상됐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추후 (경실련이) 정치적으로 물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유승민 "박지원처럼 사드 반대자들과 같은 당 힘들어"

**"최순실·정윤회 잘 몰라…
알았다면 가만 있지 않았을 것"**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비박계 보수신당에 참여할 인사들 중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함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유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나 남북 관계나 한미 동맹이나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예컨대 국민의당 박지원 같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존경하지만 그런 분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며, "그런 분하고 같은 정당으로 가서 같은 대선 후보를 낸다? 제 원칙으로는 상상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핵실험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정보 수집 능력을 우리가 한미일 3자 MOU 체계에서는 시간이 걸리고 했는데 이것을 한일 간 직접 주고받는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찬성했다.

그는 다만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선 "단일 교과서로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대했고,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결코 잘된 합의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신당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나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영입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그분이 신당에 참여해서 저희들과 치열하고 공정한 경선을 거쳐서 신당의 대선 후보를 확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과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 등을 하면서 최순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알았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윤회 씨 문제는 잘 몰랐다"며, "문고리 3인방은 제가 11년 전에 비서실장을 할 때 같이 일도 해 봤던 그런 경험도 있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제가 늘 따끔하게 질책을 해 왔다. 오히려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안종범 "재단 설립·대기업 개입은 대통령 지시…나는 이행"

**국조특위 비공개신문…
"공소사실 대체로 인정 못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6일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과 대기업에 대한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하고, 지시하고, (나는) 이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열린 안 전 수석 등에 대한 비공개 신문을 진행한 뒤 브리핑을 통해 안 전 수석에게서 이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종범인 증인(안 전 수석)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안 전 수석은 다만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은 물론이고, 포스코·현대 등 (에 대한 이권 개입 등) 구체적 농단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결정하고 (나는) 이행했다"고 답변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뉴스1

정호성 "최순실, 대통령 말씀자료 수정한 것 사실"

**"인편으로 최순실에 문서 보낸 뒤
다시 인편으로 받았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26일 박근혜 대통령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말씀자료를 보내주고 최순실이 의견을 말하고 수정도 한다"고 최순실의 연설문 등 개입 사실을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진행된 '최순실 국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의 비공개 접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특위 간사 박범계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 공무상 기밀이 전달된 것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 전 비서관은) 국정원, 감사원, 검찰총장 인사에 관한 의원들 질의에는 (최순실 개입 여부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답했지만, 인사안을 발표할 때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최순실 "태블릿PC 내꺼 아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26일 이번 사태 전말의 단초를 제공한 '태블릿 PC'와 관련, "나는 노트북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비공개 접견을 마치고 브리핑을 열고 "최 씨는 노트북을 썼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브리핑에서 "최순실 씨가 2012년에 태블릿PC를 처음 봤고, 그 다음부터는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줄도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반기문, 8주만에 문재인 제치고 1위 탈환

**반기문 23.3%로 오차범위 내
문재인(23.1%) 앞서
이재명 12.3%로 2주 연속 하락…
4위 안철수 8.2%**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탄핵 국면 과정에서 줄곧 하향 곡선을 그리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가 8주만에 오차범위 내지만 1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26일 리얼미터가 지난 19-23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5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응답률 10.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 반 총장은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23.3%를 기록, 문재인(23.1%) 전 대표를 0.2%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반 총장은 … 35.8%의 지지율을 기록, 전주(26.5%) 대비 9.3%포인트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 총장은 이 외에도 경기·인천에서 4.6%포인트(17.5%→22.1%), 대전·충청·세종에서 3.8%포인트(22.4%→26.2%) 상승하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반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정점으로 치닫던 지난달 3일 발표된 조사에서 문 전 대표에게 지지율 1위 자리를 내준 뒤 8주 연속 2위에 머물렀다.

문 전 대표는 전주 대비 0.6%포인트 소폭 하락(23.7%→23.1%)했다.

한편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무섭게 몸집을 키웠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주대비 2.6%포인트 하락한 12.3%를 기록,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전주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8.2%로 여전히 한자릿수 지지율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4.9%, 박원순 서울시장은 3.9%에 그쳤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누리집(http://www.nesdc.go.kr)을 참조하면 된다. 뉴시스

대구공항 이용객 250만 명 돌파

1961년 개항 후 첫 기록
내일 기념식…적자 털고
'흑자 경영' 원년 선포

대구시와 한국공항공사는 대구국제공항의 재도약을 축하하고, 그동안 공항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기관·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대구국제공항 항공여객 연간 250만 명 달성 기념행사'를 28일 오전 9시 30분, 대구국제공항 2층 여객터미널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성일환 한국공항공사 사장, 류규하 시의회 의장, 이귀화 건설교통위원장,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진영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박인규 대구은행장, 강대식 동구청장, 차수환 동구의회 의장, 박하식 공군 제11전투비행단장,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이사, 한태근 에어부산 대표이사 등 내빈과 관계기관·단체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대구국제공항의 성공적인 발전과 재도약을 기원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항공사, 공군부대, 지방항공청 직원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면서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한다.

또한, 올해 대구 취항과 함께 대구발(發) 국내·국제선 정기노선 신설로 공항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에어부산 한태근 대표이사와 한국공항공사 최초 여성 지사장으로 2014년부터 3년간 대구공항 인프라 개선, 지역민의 항공교통 편의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오며 12월 26일자로 본사에 영전한 이미애 운영지원실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250만 대구시민의 이름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내빈과 참석자들은 "대구국제공항 재도약!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고 함께 외치며 떡케이크를 절단하면서, 대구공항의 흑자전환과 항공여객 연간 250만 명 달성을 자축하고, 앞으로도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함께 모아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이날 행사 시간대 국제선 출국장에서는 대구에서 일본 오사카와 도쿄로 향하는 2편의 항공기(에어부산 BX120편, 티웨이항공 TW211편)에 탑승한 관광객 전원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대구에서 일본으로 떠나는 250만 번째 승객으로 선정된 ○○○ 씨(○○세, ○○동 거주) 가족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하며 기념촬영을 하는 등 축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공식행사가 끝난 후 주요내빈 전원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주차빌딩 신축공사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사 상황을 브리핑 받는 등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대구공항 이용객 급증과 주차난 심화에 따라 지난 해 지상 3층 723면 규모의 주차빌딩 신축에 착수했으며, 내년 초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1961년 4월 대구공항은 부산비행장 대구출장소로 개항해, 대한국민항공사(KNA, 대한항공 전신) 소속의 더글라스 DC-3 여객기 한 대가 대구를 떠나 김포로 향했다. 이후 55년이 지나 대구국제공항은 연간 항공여객 250만 명 시대를 맞이했다.

대구국제공항은 아시아 외환위기(1998년), 9.11테러(2001년), 사스(2003년, 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어오면서도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2004년 KTX 개통으로 인해 대구공항의 주력 노선이었던 대구-김포 노선이 2007년도에 폐지되면서, 장기간 침체기에 접어들게 됐다.

2009년도에는 연간 이용객 102만 명(국제선 9만 명)까지 떨어지면서, 공항 이용객이 100만 명도 되지 않는 무늬만 국제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있었다.

하지만,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2015년 대구경북세계물포럼 등 굵직굵직한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면서, 대구·경북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국제공항을 살려내야 한다는 한목소리로 민-관-군 협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대구시는 2012년 대구공항을 취항하는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제선 신규노선 취항항공사에 대해 손실액의 일부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측에서도 대구공항을 신규 취항하는 항공사에 대해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등 시설사용료를 50-100% 면제해오고 있다.

또한, 공군 및 동구 지역주민들의 협조로 야간운항통제시간 단축, 법무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환승공항 지정, 지역 관광업계에서의 외국 관광객 유치 노력 등 제반 여건 개선이 이어지면서 국·내외 항공사 4개사(티웨이항공, 제주항공, 타이거에어, 에어부산)를 대구공항으로 유치하게 돼, 항공 수요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

이처럼 대구국제공항 활성화의 바탕에는 대구시와 공항공사, 국토부, 법무부, 공군, 항공사, 관광업계, 인근 주민 등이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는 등 소통과 상생발전의 노력이 자리하고 있으며, 지방공항 활성화에 있어 전국 최고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 대구공항의 국제선은 중국 베이징, 상하이, 선양의 3개 노선 밖에 없었으나, 지난해부터 국제노선 다변화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오사카, 괌 노선 신설을 시작으로 올해 타이베이, 도쿄, 후쿠오카, 홍콩, 세부, 삿포로, 싼야(中하이난섬)에 이르기까지 12개 노선으로 늘어나면서 지역민의 해외여행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졌고, 외국 관광객의 유치로 지역 관광산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공항이용객은 2013년 108만 명에서 올해 250만 명으로 131% 늘었으며, 특히 국제선의 경우 3개 노선 주 14편에서 12개 노선 주 168편으로 확대되면서, 이용객도 14만 명에서 67만 명(12.31예상)으로 371% 늘어났다.

공항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대구공항이 만성적인 적자공항에서 흑자공항으로 탈바꿈하게 돼, 전국 공항에서 차지하는 위상 또한 한층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대구국제공항은 숨 가쁘게 앞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상반기 중으로 베트남, 일본지역 등의 노선 개설을 항공사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지역의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제노선 다변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상하 기자

청소년정책 대구가 '으뜸'

평가·경진대회 잇따라 입상
'청소년어울림마당 우수 사례 공모'서 최우수기관상 수상

대구시가 지역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추진한 많은 사업들이 각종 평가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올해 대구시 청소년 정책이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16년 청소년어울림마당 우수 사례 공모'에서 서면 심사와 발표를 통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대구시는 2·28기념중앙공원에 무대를 설치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청소년들이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놀이터로 조성했다.

올 한해 공연 271회, 부스 889개, 프로그램 1160개를 진행해 3만5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5월 청소년문화축제, 7월 물총축제, 9월 힙합페스티벌, 10월에는 청소년행복페스티벌 등 계절별 테마 행사를 연계 개최해 청소년들에게 소통의 공간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2016년 청소년정책 분석 시범평가'에서도 대구시가 추진한 60개 사업 중에서 61.7%에 해당하는 37개 사업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22개 사업이 '우수' 등급을 받아 98.4%에 해당하는 사업이 '우수'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표사업 평가 대상이었던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 지방경찰청, 지방법원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군 센터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 위기의 청소년을 보호했다는 점이 우수했다는 평을 받았다.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뉴딜프로젝트' 사업으로 동상을 수상했다.

최유희 기자

'심정지 골든타임 사수' 스마트 돌봄서비스 추진

스마트폰이나 PC 없어도,
인터넷 몰라도, 홀로 멀리살아도,
가족건강 지킨다

대구시는 고령화와 서구식 식습관으로 인해 급증하는 심장질환자에 대한 조기발굴 및 돌연사 사전인지가 가능한 스마트 기반의 '가족협력형 부모 안전돌보미 사업'을 완료하고, 서비스 본격 개시를 위한 완료보고회를 오는 28일 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개최한다.

특이사항을 보면 농촌지역, 고령인 독거가구의 특성과 스마트폰 및 PC이용이 불가능한 환경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및 PC가 없어도, 인터넷을 몰라도, 홀로 멀리 살아도 가족이 함께 심장질환에 대한 건강지킴이 가능케 한 서비스로, 고령인 어르신은 단지 2-3번 터치를 통해 건강정보를 가족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

최유희 기자

에너지절약 캠페인, "겨울철 난방 18~20도 적당"

대구시 에너지절약 캠페인,
적정 난방온도 준수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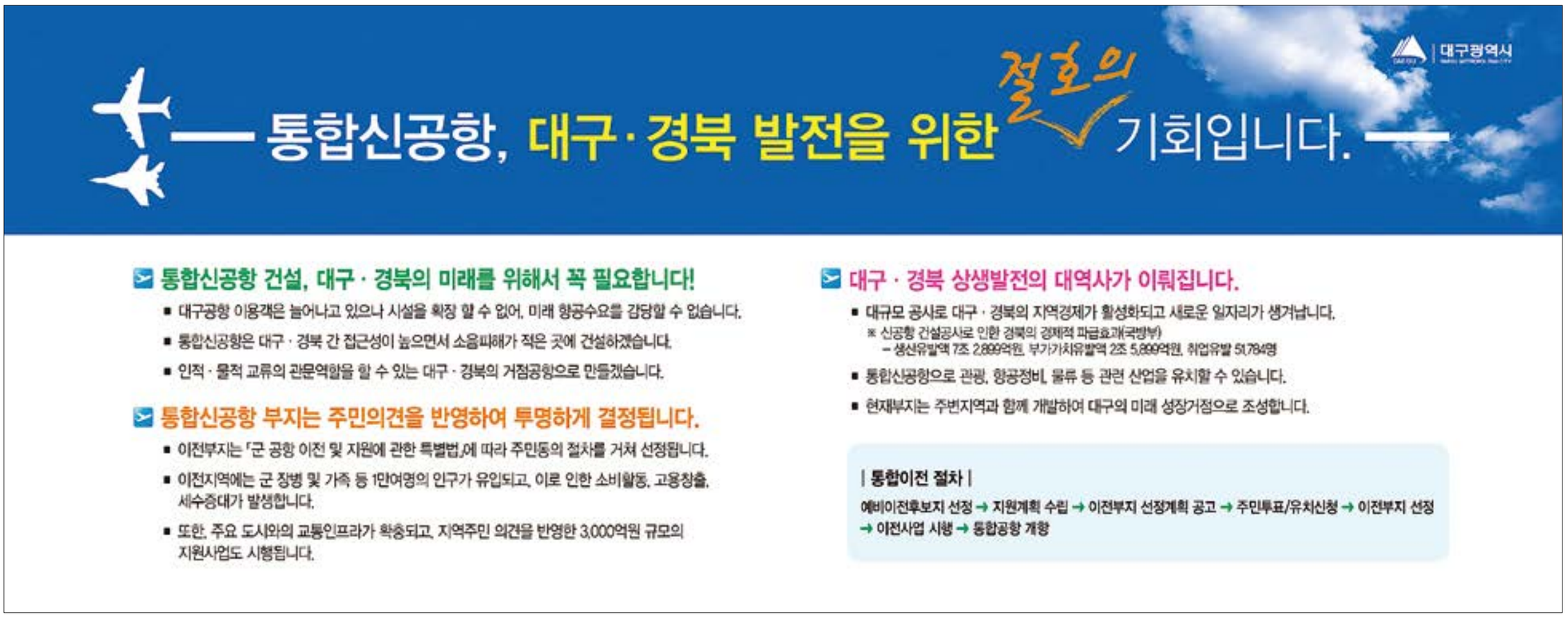
대구시는 에너지소비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적정 난방온도 준수(18˚C~20˚C) 및 문열고 난방영업 자제 등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을 홍보해 자율적으로 시민의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2016년 12일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올 겨울 전력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대구시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해 적정 난방 온도(18˚C~20˚C) 준수, 안 쓰는 전기 플러그 뽑기, 문 열고 난방영업 자제 등의 홍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에 따라 난방온도는 평균 18˚C 이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도서관, 대중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다수의 학생,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자체적으로 적정 난방온도를 정해 운영하고, 도시철도 에스컬레이터, 장애인 엘리베이터 등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시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올 겨울 전력 수급은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에너지절약 실천을 자율적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유희 기자



중구 남구 동구 수성 북구 서구 달서 달성

임병헌 남구청장은 27일 오후 '2016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송년행사'에 참석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27일 오전 동구 아양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동구문화재단 정기이사회'에 참석한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27일 오전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2016년 하반기 퇴임식'에 참석해 퇴임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27일 오후 칠성동주민센터에서 개최되는 '칠성동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27일 오후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되는 '2016 성악 중창 페스티벌'에 참석한다.

북구 '브라운스톤강북' 대구 최초 금연아파트 지정

북구보건소는 사수동 소재 '브라운스톤강북아파트'를 대구 최초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26일 지정·공고했다.

브라운스톤강북아파트는 2015년 6월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9개동 959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입주민 세대주 54.74%의 동의를 얻어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이는 지난 9월 3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는 대구 지역에서 최초 사례이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은 이 아파트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로, 26일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내년 6월 26일부터는 해당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보건소 보건행정팀(665-32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균 기자

전국서 가장 안전한 도시 '달성군'

자연재해 대비 지역안전도 진단 3년 연속 1등급 선정

달성군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3년 연속 최상위 1등급에 선정됐다.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진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두고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등을 종합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안전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국민안전처는 학계, 업계 등 방재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중앙진단반이 평가해 등급을 부여 한다.

달성군은 대구 면적의 48%를 차지하는 넓은 면적과 국가하천, 지방하천 등 128개의 많은 하천 등 자연재해에 불리한 조건에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위험시설을 체제적으로 점검·정비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최상위 1등급을 받아 더욱 의미가 크다.

전국에 1등급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달성군을 포함 13곳에 불과하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 지역안전도 1등급은 달성군이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체계적인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력과 군민들의 많은 협조가 이 같은 성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재난위험지역이 최우선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달서구 '맞춤형 보육' 추진, 우수기관 선정

복지부서 포상금 700만 원 받아 평가 항목 전 분야서 높은 점수

달서구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맞춤형 보육 추진 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700만 원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 시행한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포상,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평가 항목은 △맞춤형 보육 준비 △어린이집 운영관리 △종일반 자격관리 △맞춤형 홍보 및 지자체 관심도 4개 분야 8개 세부항목으로 평가했다. 이중 최종 3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달서구는 4개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달서구는 맞춤형 보육의 조기정착을 위한 사전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와 맞춤형 보육 대상자에 대한 사전자격 판정결과 통지, 종일반 운영 관련 제도안내 및 현장점검, 부적정 자격자 관리를 위한 현장 확인 등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과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우 기자

남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6년 연속 최우수 영예

남구청은 2016년 대구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구·군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6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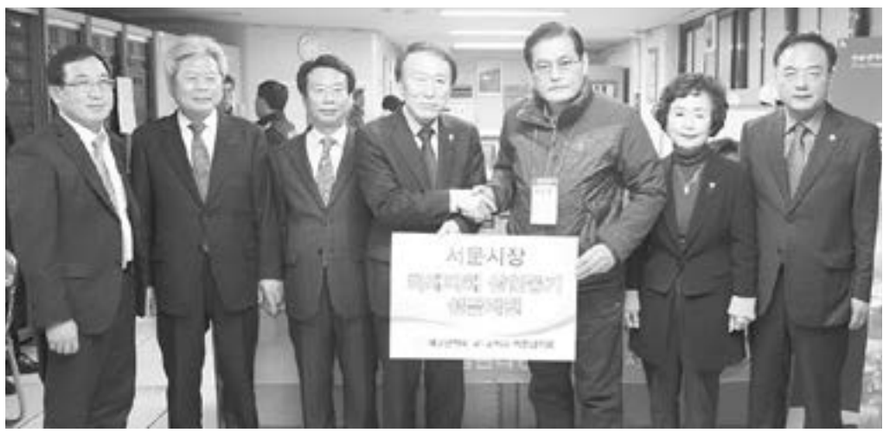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는 2011년 처음 시행돼 대구시 8개 구·군과 16개 주민자치센터(구·군별 2개)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구·군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지원 부문과 서면평가와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문 등의 현장평가를 토대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구·군이 선정됐다.

남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추진과 △2회에 걸친 주민자치 아카데미 실시 △주민자치위원 연수대회 개최 등 활성화 부분과 △대구시 주민자치 선도사업 추진 △행정자치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과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조성 등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 공모선정 및 추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현장평가 2개동(이천동, 대명5동) 등 13개 동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동아리 공연, 음악회, 마을축제 등 다양한 주민자치사업 시행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체험사례 발표 및 '남구청 문화갤러리' 작품전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마을문제 해결 노력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흥규 기자

북구의회 하병문 의장, 서문시장 피해 성금 기탁



서문시장 통합지원본부 방문, 성금 500만 원 기탁

북구의회는 지난 23일 서문시장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서문시장 통합지원본부를 방문해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지난달 30일 서문시장 4지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300만 원, 대구구군의장협의회에서 2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해 총 500만 원의 성금을 서문시장 비상대책위원장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문시장 4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실패함에 따라 하병문 의장이 지난 20일 서울 성북구에서 개최된 제198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서문시장 피해상인들을 위한 성금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결과이다.

하병문 북구의회 의장은 "현재 어수선한 국내 정세 속에서 서문시장 화재가 발생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아픔을 공감하고 있다. 실의와 도탄에 빠진 서문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피해지역이 빠른 시일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창균 기자

중구에 '마당깊은집 문학관' 들어선다

중구는 2017년에 추진할 신규 역점사업을 발표했다.

중구는 2017년부터 2년간 '마당깊은집 문학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김원일 소설 '마당 깊은 집'을 배경으로 등장인물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그 시절 피난민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문학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장관동 일원의 한옥을 리모델링하는 이 사업은 이상화 고택과 서상돈 고택 등 근대역사문화자산과 연계해 또 다른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촌동 수제화 슈즈센터 조성사업'은 향촌동 수제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특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자 2017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전시장, 역사관 등을 꾸미고 있다.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의 슈즈센터는 수제화를 만드는 공정을 관람할 수 있는 개방형 공장과 가죽공방이 들어설 예정이라 대구 수제화 집적지인 향촌동의 관광 명소화와 골목상권 활성화가 전망된다.

중구골목투어 5코스인 남산동과 덕산동 일원에 2017년부터 3년간 공연장, 광장,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남산·누리행복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도심의 휴식처를 제공하게 된다.

야시장이 활발한 교동시장일원의 체계적 재생을 위해 '교동시장일대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시작된다.

지금까지 시행한 중구의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개선, 골목경제 살리기 등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선정 등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중구를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게 해준 김광석 길에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하는 '김광석 스토리하우스'가 완료돼 2017년 상반기에 시민들에 공개된다.

김광석 길에 대한 정보와 각종 편의시설 겸비해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이와 함께 김광석 길의 벽화 업데이트 사업이 진행되며 기존 27점의 벽화를 30점으로 제작해 스토리가 확장된다.

1919년 대구읍성의 남쪽성곽이 허물어지고 생겨난 남성로, 한방테마거리가 새 옷을 입는다. 그 동안 대형쇼핑몰 등에 빈번한 차량 진출입으로 도로 곳곳이 파괴돼 도시미관이 저해됐으나 이 사업을 통해 개선될 것이다.

안정적인 청소행정을 위한 '청소차 차고지 조성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된다. 중구는 그간 청소차 차고지를 임대 사용해 임대료 상승과 계약해지 시 대체부지 확보 애로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성내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돼 그 동안 주차난으로 신음하던 지역의 주민과 상인들에게 주차 불편이 해소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의 금지효과도 예상된다.

중구는 타 지역과 다른 저출산대책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주요내용은 △관내 거주 난임부부의 인공수정, 체외수정에 대해 최대 240만 원 지원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최대 150만 원의 출산축하금 지원 △관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최대 360만 원의 출산장려금 지원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출산 후 2주간 건강관리사를 집으로 파견한다.

김진희 기자

대구 K2군공항 의성 이전 "환영합니다"

대구 군공항(K2)의성 이전에 찬성하는 군민들이 26일 오후 의성군청에서 김주수 군수와 간담회를 끝내고 청사를 빠져나가는 군관계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경산에 이어 김천 AI 검출… 초비상

경북지역 야생조류에서 잇따라 AI 발생이 확인되면서 닭, 오리 사육 농장으로 AI가 번지는 최악 사태를 막기 위해 농가는 물론 경북도와 방역당국이 함께 긴장

지난 12일 경산 금호강에서 발견된 큰 고니 사체에서 AI가 검출된데 이어 김천시 지좌동 감천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자 경북도가 비상이 걸렸다.

경북지역 야생조류에서 잇따라 AI 발생이 확인되면서 닭, 오리 사육 농장으로 AI가 번지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농가는 물론 경북도와 방역당국이 함께 긴장하고 있다.

특히, 환경청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 6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AI 추가 발생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환경청은 고병원성 확진에 따라 하천 진출입구에 차량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반경 10㎞ 이내의 가금류와 운반 차량의 이동을 제한했다.

감천 주변 지역에서 추가로 분변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등 예찰을 강화하고 검출지역에 대해 소독과 함께 사전 출입 통제를 했다.

감천 인근 10㎞ 안쪽에는 65농가에서 닭 153만 마리를 키우고 있어 사태추이에 따라 대대적인 살처분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천시는 관내 야생조류 집단서식지와 방역취약지구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독하는 등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후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육농가의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 역시 고속도로 주요 나들목에서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 소독을 강화하고 도내 22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 41곳을 설치하는 등 AI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일단 AI가 발생하면 확산을 막기는 한계가 있고 관련 산업의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전 공무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비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은진 기자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대구 경찰관 입건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 면허정지 수준 상태

대구 강북경찰서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최모(56)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경위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께 대구 북구 연경동에서 자신의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아반떼를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최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9%(면허정지 수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최 경위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창균 기자

청약통장 매입 주택 97채 불법 거래…100여 명 기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접근해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아파트 불법 매입해 차익 챙겨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접근해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아파트를 불법으로 매입해 차익을 챙긴 부동산 업자와 통장모집책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호철)는 26일 다른 사람의 주택청약저축통장을 이용해 주택 97채를 사들인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소위 '떴다방' 업자 A 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통장모집책 B 씨(46·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청약통장 판매자 109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A 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통장모집책 B 씨 등을 통해 153명으로부터 청약통장 161개를 3억9300여만 원에 사들인 뒤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경남 거제, 충남 천안, 대구 등지에서 주택 97채를 공급받은 혐의다.

통장모집책인 택시회사 노조사무장 C씨(50)는 동료 택시기사들에게 접근해 청약통장 19개를 A 씨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약통장 전문 알선책을 단계적으로 조직해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 청약가점이 높거나 특별공급분양을 받을 조건이 되지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청약통장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집책으로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은 우선자격자들을 소개받은 A 씨는 청약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A 씨가 청약증거금을 직접 예치하고, 통장 명의자들이 청약증거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1건당 평균 400여만 원을 통장매매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주택공급 계약 취소와 불벅 수익 환수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세무서 등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는 서민들의 약점을 악용해 투기 목적의 청약통장 개설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택공급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대구 성서署, 보이스피싱 범죄 잇따라 막아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데 기여한 은행들에 감사장 전달

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위해 은행에서 돈을 찾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인출책 A 씨(47·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6분쯤 대구 달서구 한 은행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다 은행 창구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죽전지구대 대원들에게 붙잡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세금을 인출한 것"이라고 버티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무역회사인데 돈을 찾아주면 수수료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돈을 인출하려 했다"고 털어놨다.

같은 날 오후 4시 40분쯤 성당파출소 순찰 대원들이 달서구의 다른 은행에 출동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B 씨(73·여)를 발견, 피해를 막았다.

"남편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 인출했다"며 인출 경위를 숨기려던 B 씨는 출동한 대원들의 설득 끝에 "전화로 한 남자가 검찰청 직원이라면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해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규문 성서경찰서장은 "금융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해치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데 기여한 은행들을 방문, 감사장을 전달했다.

최영우 기자

경주 외동공단 자동차 부품공장 火…2억5천만 원 피해

26일 오전 7시 51분쯤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불은 공장 기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억5000만 원의 피해를 내고 3시간여 만인 오전 10시쯤 진화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4대와 헬기 1대, 인원 180여 명을 투입했다.

불이 날 당시 공장에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업을 위해 전원 스위치를 올리자 3층에서 불꽃이 시작됐다는 공장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윤용찬 기자

경산 시내버스 요금 인상… 일반 13.6%·청소년 9.6% ↑

교통카드 요금기준 일반 150원·청소년 80원 인상

경산시는 오는 30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요금조정은 2011년 7월 이후 5년 6개월만이다.

인상된 버스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성인일반 1100원→1250원, 청소년 770원→850원으로 각각 150원(13.6%)과 80원(9.6%)씩 오른다.

시 측은 이번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그간 인건비, 물가인상 등 운송원가의 꾸준한 증가로 경북도내 타 시·군에서는 지난 1월 인상했지만 경산시는 대구시와 연계를 위해 그동안 보류했다가 지난달 23일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구시의 요금인상과 함께 요금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 어린이는 3명까지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대중교통 무료환승제도는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돼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최초 하차 후 30분 이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모든 시내버스에 LED행선지 안내기 설치와 CNG버스를 확대해 나가고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통해 난폭운전 근절, 배차간격과 교통법규 준수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경운 기자

대구시, 땅밑으로 새는 수돗물 잡는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258억 투입 누수방지 사업 대대적 추진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누수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와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해 내년에 2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누수방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상수도본부에 따르면 유수율 향상과 누수방지를 위해 노후관 개량사업, 배수관망 정비, 누수탐사 용역 등의 누수방지사업을 추진한다.

녹물과 이물질 출수 등 수질 민원이 잦은 지역의 노후관과 누수가 발생하는 오래된 관을 교체하는 노후관 개량사업에 234억 원을 투입해 56㎞의 노후관을 교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수장과 배수지, 가압장 등 배수계통별로 급수구역을 체계화한 배수관망 구역화(Block System) 사업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해 8억 원을 투입해 95개소의 배수관망을 정비한다.

또한, 누수탐사용역에도 16억 원을 투입해 체계적인 누수탐지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유수율이 낮은 지역과 누수에 취약한 도심·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탐지를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과 누수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상수도본부는 지난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총 3779㎞에 대해 사업비 3074억 원으로 노후관 교체를 완료했고 2002년부터 2015년까지 475억 원을 투입해 총 586개소의 배수관망 구역화 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지하로 스며드는 누수를 탐지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89억 원을 투입해 1만200여건의 누수 지점을 수선해 수돗물 5800만 톤이 버려지는 것을 예방했으며 그 결과 325억 원의 생산 비용을 절감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누수방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상수도사업 경영지표인 유수율을 72.4%에서 92.8%로 향상시켜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영합리화에 크게 기여했다.

김문수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내년에도 누수방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경찰, 시민과 감성코드 맞추다

대형 LED 전광판 설치 무학 갤러리, 북카페 개관 등 다양한 시도에 시민 눈길 끌어

대구경찰이 시민들과 감성코드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민원실의 전경이 확 바뀌었다.

대형 LED 전광판을 민원실 입구에 설치해 각종 경찰시책 및 민원정보를 하루 평균 7200여회 내보내고 있다.

이 전광판이 특별한 이유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명언과 명시를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학로를 자주 통행하는 직장인 이현지(39·여)씨는 "'당신은 세상에서 한 명의 사람이지만 한 사람에게 당신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라는 조세판 빌링스의 시를 보고 참 좋았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 대구경찰청은 지난 2일 '무학 갤러리, 북카페'를 개관했다. 초등학생에서부터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까지 다양한 주제와 내용의 작품으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북카페라는 이름 답게 미술작품과 책이라는 두마리르 토끼를 잡아 민원인과 직원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지역 예술가 작품과 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다.

3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무학도서관은 지역주민의 글쉼터로 각광받고 있다. 지산동에 사는 서경교(37) 씨는 "지척에 이런 도서관이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예전엔 경찰서를 아이들과 방문한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며 웃었다.

대구경찰은 지난 14, 15일 이틀간 무학갤러리·북까페에서 '多讀多讀(다독다독) 행복 나눔 도서바자회'를 개최했다. 2439권의 책을 권당 1000원에 판매해 115만 원을 모아 서문시장 화재 피해상인 돕기 성금에 사용하기로 했다.

조일래 기자

달성군 목재재활용공장 화재… 2000만 원 피해

26일 오전 4시 42분께 달성군 하빈면의 한 목재재활용공장에서 불이나 20분여만에 진화됐다.

불은 공장 내부 적재물과 지붕 등 330㎡를 태워 200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조여은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시 549명 모집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2017학년도 정시모집생 549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시모집 가군, 다군에서 나눠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가'군에는 불교문화대학과 인문대학, 과학기술대학(공학계열 일부), 한국음악과, 스포츠과학과를, '다'군에는 사회대학과 상경대학, 자유전공학부, 과학기술대학(이학계열 일부), 사범교육대학, 한의예과, 간호학과, 미술학과 등을 각각 모집한다.

2017 정시모집은 예·체능계열을 제외하고 모든 모집단위에서 수능 100%로 학생을 선발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은 한의예과는 3+1이며 국어 20, 수학(가) 30, 영어 30, 과탐 20을 반영하고 예체능 계열은 2+1 로 선택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과목을 40씩 반영하고 지정영역은 탐구 20, 사탐/과탐/직탐 중 1 이다.

그 외 전체학과는 3+1로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탐/과탐/직탐 중 1을 반영하되 자연계열은 수학(가)에 가중치 10%, 간호학과는 수학(가) 10%, 과탐 5% 가중치를 적용한다. 탐구영역은 2과목 모두 반영한다.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가군은 2017년 1월13일, 다군은 2017년 1월26일 예정이다.

경주캠퍼스 정성훈 입학처장은 "매년 수도권에서 40% 이상의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는 만큼 대학은 최신식 기숙사를 제공하고 영남 대도시에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성적 우수 입학자에게는 동국엘리트장학생으로 선발해 전학기 등록금과 입학금, 기숙사비 면제, 해외연수비 최대 1년 지원까지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경북대 추태귀 교수 발전기금 1천만원 전달

경북대 추태귀 교수(과학기술대학 섬유패션디자인학부)가 26일 김상동 경북대 총장을 방문해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발전기금은 경북대학교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진희 기자

김천대 안경광학과 국제공인 시험 전원 합격

김천대학교 안경광학과는 '국제 콘택트렌즈 교육자 협의회(IACLE)' STE인증 시험(국제공인 콘택트렌즈 시험)에서 응시자 45명이 전원 합격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천대 안경광학과는 이번 인증시험에서 3학년 지원자 45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안경광학과는 2014년 처음 IACLE 시험에 70명의 학생이 응시해 100%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3년 연속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영예를 누렸다.

'IACLE STE'는 호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콘택트렌즈교육자 단체로 세계적 명성이 있는 유일한 콘택트렌즈 전문가 협의회다.

매년 콘택트렌즈 관리자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에 통과하는 학생들에게는 자격증을 수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은진 기자

포스텍, 조선업계 빅데이터 전략 모델 개발

송민석 교수 연구팀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과 개발

포스텍은 산업경영공학과 송민석〈사진〉 교수 연구팀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과 함께 조선 분야 빅데이터 전략 모델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된 모델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조선업 BIG DATA 전략모델 사이트(http://kosbis.org)'를 통해 회원에 가입한 국내 기업들에게 무료로 공개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조선업의 벨류 체인을 바탕으로 각종 빅데이터 분석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정리해 발주 예상 고객군과 시장 분석, 공정 분석 및 최적화 등과 같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 기법을 완성했다.

이 모델은 기업의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빅데이터 적용 전략 안을 도출해 내는데 활용할 수 있다.

전략 모델과 함께 제공하는 실증 사례로 삼성중공업은 의장 배관 제작 공정의 빅데이터 분석 전략 모델을 새롭게 정립해 해양플랜트 건조시 공정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NFC 택(Tag) 기반 협력사 공정 및 공급망 관리 모델을 구축해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대형조선소-협력사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통한 상생 방안을 도출하고 조선업 빅데이터 활용 기반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추진하는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서비스 시범 사업으로 수행됐다.

송민석 교수는 "이번 개발된 빅데이터 분석 전략 모델과 실제 적용됐던 실증 사례를 통해 조선해양 기업들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조선업의 위기 상황에서 조선업을 대표하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함께 전략 모델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훈 기자

취업 가장 잘 되는 대학 학과는 '의약계열'…

대학원 취업률왕도 '의약系'
의학계 이어 공학계〉교육계〉
사회계〉자연계열 뒤이어
전문대 취업률 1위 '교육계'…
취업률 꼴찌는 '인문계'

전문대를 제외한 4년제 대학, 일반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가장 취업률이 높은 계열은 '의약'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5일 발표한 '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계열별 전체 취업률은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의약계열(82.2%)이 가장 높았다. 의약계열내에서는 의료(91.0%)가 가장 높았고, 약학(87.4%), 간호(85.4%), 치료·보건(77.3%)순이었다.

의약계열에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약학 등 전문직종과 치료·보건 분야의 보건학, 재활학 등이 두루 포함돼 있고 이들 분야의 취업률은 7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까지 상대적으로 높다.

고등교육기관별로는 4년제 대학(83.2%)에서도 가장 취업률이 높은 계열은 의약이었다. 의약계열내 취업률은 의료(89.4%), 약학(89.1%), 간호(84.4%), 치료·보건(77.1%)순이었다.

일반대학원(89.1%)에서도 취업률왕은 의약계열이었다. 의약계열내 취업률은 의료(92.9%)가 가장 높았고 간호(89.3%), 약학(81.5%), 치료·보건(80.3%)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문대에서 취업률 1위는 유아교육(85.8%), 특수교육(89.5%) 등이 포함된 교육계열(85.8%)이었다. 의약계열은 80.2%로 뒤를 이었다.

계열별 전체 취업률에서는 의약계열에 이어 공학계열(72.8%), 교육계열(68.6%) 사회계열(64.3%), 자연계열(63.9%)순이었다. 인문계열(57.6%)은 예체능계열(61.9%)보다 낮아 취업률 꼴찌를 기록했다. 뉴시스

"배운 지식 나눠주고, 역량 쌓아오겠습니다"

경북전문대, 2016학년도 동계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운영

경북전문대학교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이하 대사협)에서 주관하는 '2016학년도 동계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베트남 껀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돼,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으로서의 그 역량을 다져나가고 있다.

대사협은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단 파견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북전문대학교는 하계에 이어 이번 동계 해외봉사에도 지원사업에 공모해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봉사단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국내 사전교육을 통해 베트남 기초생활회화, 역사와 문화 등 출국 준비를 완료했으며, 내년 1월 8일-20일까지(12박 13일) 재학생 18명 교직원 3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베트남 껀터시에 파견한다.

이들은 현지대학 베트남 껀터국립대학교와 공동 운영 프로그램 등 전공연계 봉사활동을 펼질 예정이며, 활동 분야(직종)로는 △교육(글로벌 cs교육): 승무원체험, 글로벌 매너교육(인사법) △취약계층(고아원): 우리나라 놀이문화 소개, 미술지도, 풍선아트, 태권도 한국음식체험, 글라이더 제작 및 원리이해프로그램 등) △양로원(지역보건증진: 기본건강검사(활력징후 프로그램, 물리치료, 구강위생, 보건교육) △BLG 여성청소년(보건교육) 등이다.

더불어 2016년 WCC사업 공동교육(WCC 해외연합자원봉사)프로그램에 우리대학 간호학과 1학년 김행은 학생을 포함한 3명이 오는 2017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세부)에 파견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WCC 선정대학 중 경북전문대학교를 포함 17개 대학이 참여하게 된다. 전상기 기자

대구교육청, 후기고 입학전형 합격자 발표

수성구서 비수성구 지역 고등학교 진학 희망자 크게 증가한 점 주목

대구교육청은 26일 2017학년도 후기고 입학전형 합격(배정예정)자를 출신 중학교를 통해 발표한다.

합격(배정예정)자는 중학교 내신성적에 의해 학군, 남녀구분 없이 성적순으로 후기고 모집정원만큼 선발하는데, 전체 지원자 1만9450명 중 1만9107명이 최종 합격했고, 343명이 탈락했다.

합격자 가운데 추첨배정고 합격(배정예정)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정원 외를 포함해 1만8232명(남 8850명, 여 9382명), 선지원 일반고(다사고, 달서고, 대구중앙고, 포산고, 현풍고) 합격자는 875명(남 449명, 여 426명)이다.

대구교육청은 2017학년도에는 중학교졸업생 수 대비 고등학교 입학정원을 100%로 해 후기고 탈락학생이 전기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희망하면 모두 진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후기고에 탈락한 학생은 전기고 및 선지원일반고 신입생 등록 마감 후 모집정원에 미달된 고등학교의 추가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추가모집은 내년 1월 17일 공고를 거쳐, 해당 고등학교별로 18, 19일 이틀간 원서를 접수하고, 20일 전형을 거쳐 23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번 2017학년도 후기고 입학전형 결과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으로는 수성구 소재 학교 학생들의 비수성구 고등학교 진학희망자가 2015학년도 384명(7.1%)에서 2017학년도 667명(14.4%)으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비수성구에서 수성구 고등학교 진학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추첨배정고 합격(배정예정)자에 대한 배정발표는 내년 2월 2일에 출신 중학교와 우리교육청 누리집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희 기자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셋째부터 수업료·입학금 지원

경북교육청은 2017학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의 학생 중 셋째부터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제정된 경북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된다.

경북교육청은 이중 수급 방지를 위해 저소득층 학비 지원 등 각종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는 지난 5월 이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6월부터 소급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가 되면 1년 간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은 "내년도 지원 규모를 추산해 본 결과 대상 학생 수 3800여 명에 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며,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한국대학축구연맹 시상식' 영남대 축구부 각종 상 휩쓸어

영남대가 한국대학축구연맹 시상식에서 각종 상을 휩쓸며 2016년 피날레를 장식했다.

26일 영남대에 따르면 이 대학 축구부가 올해 열린 각종 대회에서 연이어 우승컵을 들어올린 것은 물론 연말 시상식에서도 상을 독식하며 올 한해를 마무리했다.

영남대 축구부 김병수(45)감독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16 한국대학축구연맹 시상식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체육학부 김현태(22·4학년)·이중서(21·3학년)·이상기(20·2학년) 씨와 특수체육교육과 김윤수(22·4학년) 씨 등 총 4명이 우수 선수상을 수상했다.

우수 선수상 16명 중 무려 4명이 영남대 선수들이다. 최우수단체상의 영예도 영남대의 차지였다.

영남대 축구부는 올해에만 주요대회 4관왕을 달성하며 대학 축구 최강자로 군림했다. 지난 10월 열린 전국체전에서 경북 대표로 출전한 영남대가 금메달을 딴 것을 비롯해 7월 제47회 전국추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 8월 제13회 추계1·2학년 대학축구대회 우승, 2016 U리그 권역 12전 전승 우승까지 차지했다.

한편, 이번에 우수선수상을 수상한 4명 모두 재학 중 프로(K리그)로 진출했다.

김현태 선수는 전남드래곤즈, 김윤수 선수는 성남FC, 이중서 선수는 광주FC, 이상기 선수는 포항스틸러스로 각각 진출했다. 김진희 기자

경북교육청, 행복교육 모니터단 성과보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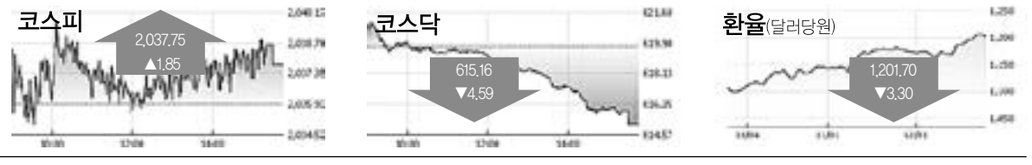
경북교육청은 26일 오전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2016년 행복교육 모니터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교원·학부모·학생 등 1만1020명으로 구성된 행복교육 모니터단은 지난해 정책토론회·현장방문 및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행복교육 모니터단은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제안을 함으로써 정부와 교육수요자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했다.

온라인 모니터링은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주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우편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오프라인 모니터링은 교육정책에 대해 정책토론회, 교육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2016년 행복교육 모니터링 결과는 2017년 정책별 추진계획 수립과정에 교육현장의 의견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행복교육 모니터단 250여 명이 참석해 올 한해 성과를 공유했다.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원 모니터단 22명, 학부모 모니터단 18명에게는 부총리 표창장이 수여됐다. 김용구 기자



대구시, 의료한류 중심지 된다

'K-Medical 외국 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 대구에 건립

대구시는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26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K-Medical 외국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Medical 외국 의료인력 통합 연수센터' 건립과 운영을 담당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구시와 센터 건립 및 운영, 의료 시뮬레이션분야 전문가 양성, 외국의료연수생 유치 협력, 국제연수사업 공동연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학술대회 공동개최 등의 사업분야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K-Medical 외국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건립하게 되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239억 원, 시비(부지매입비) 60억 원 등 총 299억 원이 투입돼 해외 의료인 임상술기 연수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7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 2019년 1월에 센터를 개원할 예정이다.

최근 선진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의료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시행되는 외국 의료인력 국내연수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지역에 집중화된 의료인 연수로 인해 연수시설이 부족하고, 외국의료인은 국내병원에서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하기가 곤란함에 따라 한국의료기술의 실질적 전파 및 연수방법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2016년도 보건복지부 중점 추진과제사업에 반영돼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K-Medical센터'는 수술실 및 검사실, 마취실 등 최신 병원 수준의 환경과 다양한 시뮬레이터 장비들을 구축하고 전공 진료과목별로 임상술기 실습을 할 수 있는 의료인 통합의료 연수시설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의료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사업과 점차 통합 운영해 'K-Medical 외국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의 활성화,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 건립에 따라 대구에서 수준 높은 임상술기 교육연수를 받는 외국 의료인이 증가해 메디컬 코리아 의료브랜드 확산 및 메디시티 대구 이미지가 향상되며, 대구가 외국의료인 교육연수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지역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지역의료기업 제품의 수출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K-Medical 외국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는 대구의료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 투자협약식에 메디시티대구협의회 차순도 회장을 비롯해 경북대병원장(조병채 병원장), 계명대동산의료원장(김권배 원장), 대구가톨릭대의료원장(최병연 원장), 대구파티마병원장(박진미 원장)이 참석해 대구지역에 센터가 성공적으로 건립 운영되고 지역에서 외국의료인 연수가 활성화 되도록 성원을 보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는 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K-Medical 외국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 건립을 통해 대구가 의료관광 활성화 및 의료한류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중소기업 조달시장 참여부담 줄인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인증획득 부담 완화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 참여를 위한 인증획득 부담과 실적요건 등을 완화하고, 창업기업과 해외시장 진출유망기업 우대 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달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 1월부터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우대 대상 인증을 기존 20개에서 11개로 축소하고, 2018년부터는 인증 평가방식을 기존의 '배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갱신 때 계약배제 여부 판단 요건인 납품실적 인정기간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MAS를 통한 조달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정책지원 우대 대상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을 추가해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우대하고, 창업기업 인정기준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새로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MAS시장에서의 공정성 및 경쟁성도 강화한다. 가구류의 경우 소수의 특정 인증보유업체에 수주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2단계경쟁에 공동수급체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소수업체만이 보유한 '성능인증(7점)'에 대해 '일반인증(3.5점)'과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영세 가구 제조업체의 납품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공정행위 적발 사실 등을 숨기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사례 방지 등을 위해 조달업체의 계약해지 요청시 1개월 후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MAS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도 개정한다.

MAS계약체결 후 계약단가 조정 시기 제한(계약단가 조정 후 3일간 제한)을 통해 업체간 과도한 경쟁 및 계약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적정가격을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최초가격 대비 자유로운 가격인하 비율을 기존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했다.

참고로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 사항들은 2017년 3월 1일부터 일괄 시행되며, 다만 인증 평가대상 축소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은 조달업체의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조속 시행될 예정이다.

조일래 기자

"인체에 무해한 치킨! 많이 드세요"

대구농협, 동성로서 시식행사 펼쳐

농협 대구지역본부는 26일 동성로에서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대구시민들에게 치킨과 구운 계란 시식행사를 펼쳤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구농협 직원들과 고향주부모임 봉사단 20여 명은 치킨 300마리와 구운 계란 100판을 준비해 시식회를 진행하면서 닭고기 소비촉진을 홍보했다.

이날 시민들과 인근 점포 상인들은 치킨과 구운 계란을 먹은 후 궂은 날씨에 고생한다며 봉사단원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기도 해 대구시민들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다.

한편, 대구농협은 지난 21일부터 매주 수요일을 '닭고기 먹는 날'로 지정하고 관내 농협은행과 지역농협 전 지점에서 매주 수요일에 닭고기를 메뉴로 편성하도록 했으며, 지난 23일에는 대구시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000만 원어치의 닭고기를 기증했다.

이상하 기자

대구백화점, 설 맞이 상품권 패키지 '더 프라임' 판매 시작

대구백화점은 26일부터 32일간 '대백상품권 더 프라임 패키지'판매 홍보행사를 벌이며, 민족 최대 명절 설(2017년 1월 28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명절 특수 잡기에 나선다.

본격적인 설 상품매장이 구성되기 전 명절기간 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를 기획하고, 본점 및 프라자점 1층 상품권 데스크에서 패키지(한정판매)상품을 판매한다.

이번 '대백상품권 더 프라임 패키지'는 100/300/500/1000/20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매고객에게는 구매금액의 1-3%의 대백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이상하 기자

건설업체, 발주기관 방문 안 해도 된다

조달청, 시설공사 '설계서 e-열람 서비스 시스템' 구축

앞으로 건설업체가 입찰 발주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설계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참가업체가 나라장터에서 설계도서를 열람하는 '설계서 e-열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수요기관이 설계도면·현장설명서·시방서를 나라장터 입찰공고 화면에 게재하고, 입찰참가업체는 이를 열람하거나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건설업체는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발주기관에 직접 방문해 설계서를 열람해 왔다.

건설업체들은 설계서 열람을 위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발주기관을 수시로 방문함으로써 시간·비용 낭비가 컸다.

심지어 설계도서를 열람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 여건을 모른채 적정 입찰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깜깜속 투찰을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야 발주기관에서 설계도서를 교부받기도 했다.

건설업체는 뒤늦게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검토하면서 자신이 입찰금액을 잘못 결정한 것을 발견하고 적자시공을 감수하거나, 시공을 포기해 정부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다.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입찰 참여 불편 해소, 정부 시설의 품질·안전 제고 등을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설계서 e-열람 서비스'를 포함하고, 수요기관·관련 협회·건설업체·설계용역업체로부터 전자열람 방법,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조달청은 오는 28일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는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6공구 매립공사'에 '설계서 e-열람 서비스' 시범적용을 거쳐,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300억 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에 본격 적용하게 된다.

향후, 운영 결과를 분석해 중·소규모 공사에까지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일래 기자

최양식 경주시장은 27일 오후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리는 '2016 경주시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한다,

포항시 R&BD기관-읍면동 자매결연…지역경제 활성화 시동

13개 읍면동과 R&BD기관간 포항사랑 자매결연 체결

포항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R&BD기관-읍·동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문명호 포항시의장을 비롯해 13개 R&BD기관 관계자와 읍·동장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간단한 상견례와 함께 간담회를 가지면서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매결연은 지난 13일 열린 2018년 국비확보 전략 및 경제활성화 대책회의의 결과로 13개 R&BD기관과 자매 읍·동은 향후 '지역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의미의 '더함 Project'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더함 Project는 크게 경제살리기 운동과 지역사랑 운동으로 나눠진다. 경제살리기 운동은 △R&BD 기관 각종 회의시 지역상가 이용 집행시 지역 기업체 참여 기회 부여 △구내식당 주1회 휴무 동참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온누리 상품권 구매 동참 △지역 대표 맛집 홍보 등이다.

지역사랑 운동의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축제 및 R&BD기관 행사에 상호 교류 확대 △R&BD기관 과학투어 실시 △대민지원 활동 및 지역 소외계층 봉사활동 공동 전개 등이다.

이밖에도 R&BD기관과 자매 읍·동은 상생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철강경기 부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포항시도 R&BD기관과 자매 읍·동간 원활한 상생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동대 강신익 행정부총장은 R&BD기관 대표로 "오늘 자매결연은 R&BD기관이 지역과 함께하는 첫 걸음"이라며 "서로 상생 협력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더함 Project 추진이 우리 지역 사랑운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소통과 교류가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세훈 기자

정유년, 희망찬 '신라대종 제야의 종' 울린다

31일 구 노동청사 대종공원서 정유년 희망의 타종 33번 실시

경주시는 다사다난했던 병신년 한해를 보내고 정유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오랜 고증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신라대종 제야의 종 타종식을 31일 오후 9시부터 지역인사, 기관단체장, 문화·예술계, 시민 등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 노동청사 대종 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타종식은 지난 2003년 10월에 서른세 번 타종 후 안전보전 등을 위해 중단된 지 13년 만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역사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라대종은 국보 제29호 성덕대왕 신종을 본 떠 만든 경주의 새로운 관광명물로 3년에 걸쳐 주조를 완성하고 현장소에 종각을 건립해 지난달 21일 안치했다.

저녁 식전행사(21:00-23:30)는 송년포크페스티벌을 시작으로 타종식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지역가수 하늘호, 뮤디의 공연을 시작으로 윤효상 토크 콘서트, 신현희와 김루트, 쎄시봉의 이장희가 출연해 서막을 장식한다.

1부 본 행사(23:30-24:00)는 신라고취대의 힘찬 공연을 시작으로 신라대종 탄생을 담은 주제영상 공연이 펼쳐진다. 미디어 파사드와 맵핑 기술을 공연과 영상을 접목한 융합형 주제영상으로 명창 정순임, 만파식적 연주자 문동욱, 무용가 주영희 등 지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 인들의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진다.

본행사의 백미인 신라대종 타종식(24:00-24:20)은 최양식 경주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 의장 및 시·도의원 등 주요인사, 기관단체장, 화랑, 원화, 국가유공자, 장애인, 자원봉사, 지진 피해 관련자, 대종 주종 관계자 등 각계의 화제 인물 등 올 한해 경주를 빛내 인물 60여명이 출연해 조별 3번씩 총 33번 타종을 한다.

타종과 동시에 시민들이 직접 소망과 염원을 담아 만든 5000여 개의 LED 풍선을 날려 제야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대미에는 희망차고 새롭게 시작하는 2017년 정유년 새해를 기리는 시민 새해 소망 신년사 상영과 시립합창단과 청소년합창단의 합창공연으로 마무리 한다.

부대행사로는 당일 오후 4시부터 봉황대 앞 잔디광장에서 신라 얼음 유물전과 성덕대왕신종, 첨성대, 석가탑, 황룡사 9층 목탑, 정유년을 상징하는 닭 등 신라 건축물을 활용한 3-4m 크기의 대형 얼음조각이 전시된다. 얼음 내부에 LED 투광기를 설치해 화려한 조명효과 연출로 신비롭고 진기한 체험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주령구, 투호, 제기차기, 신라복 입기, 연 만들기 등 민속놀이 체험과 떡국과 어묵탕 등 각종 음식과 전통 차 시식으로 행사에 참가하는 관람객들의 속을 따뜻하고 훈훈하게 만든다.

또한 행사참여 관광객 등을 위해 주차공간을 확대 무료 운영한다. 제1공영주차장에 190면, 월성초 운동장 150면, 태종로 일부 임시 300면, 구 노동청사 주차장 100면, 봉황대 앞 원효로 노면 주차장 200면, 쪽샘유적지역 공터 500면 등 총 1440면을 마련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행사장 주변에는 차량을 통제한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다사다난했던 병신년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종 타종식을 오랜 고증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신라대종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뜻 깊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바라는 성덕대왕 신종의 발원을 이어 담은 대종의 큰 울림으로 온 세상이 평화와 사랑으로 충만하길 기원한다"며 참여와 관심을 홍보 했다.

윤용찬 기자

전국 최대규모 상품권 발행, 포항경제 숨통 튼다

포항사랑 상품권 1000억 원 발행, 2000억 원 지역상권살리기 경제활성화 자금, 1280억 투입, 공공일자리 1만3420개 창출

포항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경기 둔화, 철강경기 부진 등으로 철강산업단지의 고용인원 감소(△566명, 2015년 12월 1만5369명→2016년 10월 1만4803명), 지역상권의 매출감소(월평균 매출액 △80만 원, 2016.7월 2344만 원 → 2016년 9월 2264만 원)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17년도에도 더 침체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 보고있으며, 경기침체가 지속될수록 서민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각적이고도 효율적인 특단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 경제활성화 긴급자금 편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경제·안전 10대 대책'을 발표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편성과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내년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포항사랑 상품권' 5000원권과 1만 원권 2종을 전국 최대인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포항사랑 상품권'은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학원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액면 가액의 10% 범위에서 할인, 판매된다. 개인은 할인가격으로 연 400만 원 이상을 구매할 수 없고,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시는 1000억 원의 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되면 2000억 원 이상의 현금 유동성이 추가로 발생 하고 1000억 원의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시민 소비증가 유발, 가계수입 증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2회 추경에 편성한 280억 원과 내년도에 1000억 원 규모의 소규모사업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지역기업에 일감을 제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자본선순환을 통해 지역 소규모기업·근로자, 소상공인,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의 일자리확충을 위해 청년 및 여성, 어르신, 저소득층 등 공공일자리사업에 462억 원을 들여 지난해 보다 1106개가 늘어난 1만342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공무원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 삭감 재원으로 15억 원을 확보해 민생안정 단기 일자리를 창출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별도자금 등 80억 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50억 원이었던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를 70억 원으로 확대한다.

시는 전통시장 아케이트 설치,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전면 보수,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에 88억 원을 확보하고 포항상권 북적북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포항세일 페스타, 포항상권 페스티벌을 추진하고 민·관 합동 소비촉진 분위기를 확산시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취약 소외계층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서민층을 대상으로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과 29개 읍면동 700명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해 주민밀착형 현장복지를 구현 할 계획이다.

위기단계 '심각'에 있는 AI(조류독감) 방역대책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거점소독시설 설치,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독실시를 통해 AI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한는 한편 현장중심의 예찰활동과 초동진화 체계 확립으로 산불제로화에 총력을 기하기로 했다.. 전세훈 기자

경주시, 지역 중소기업 중국 등 수출 시장 활로 개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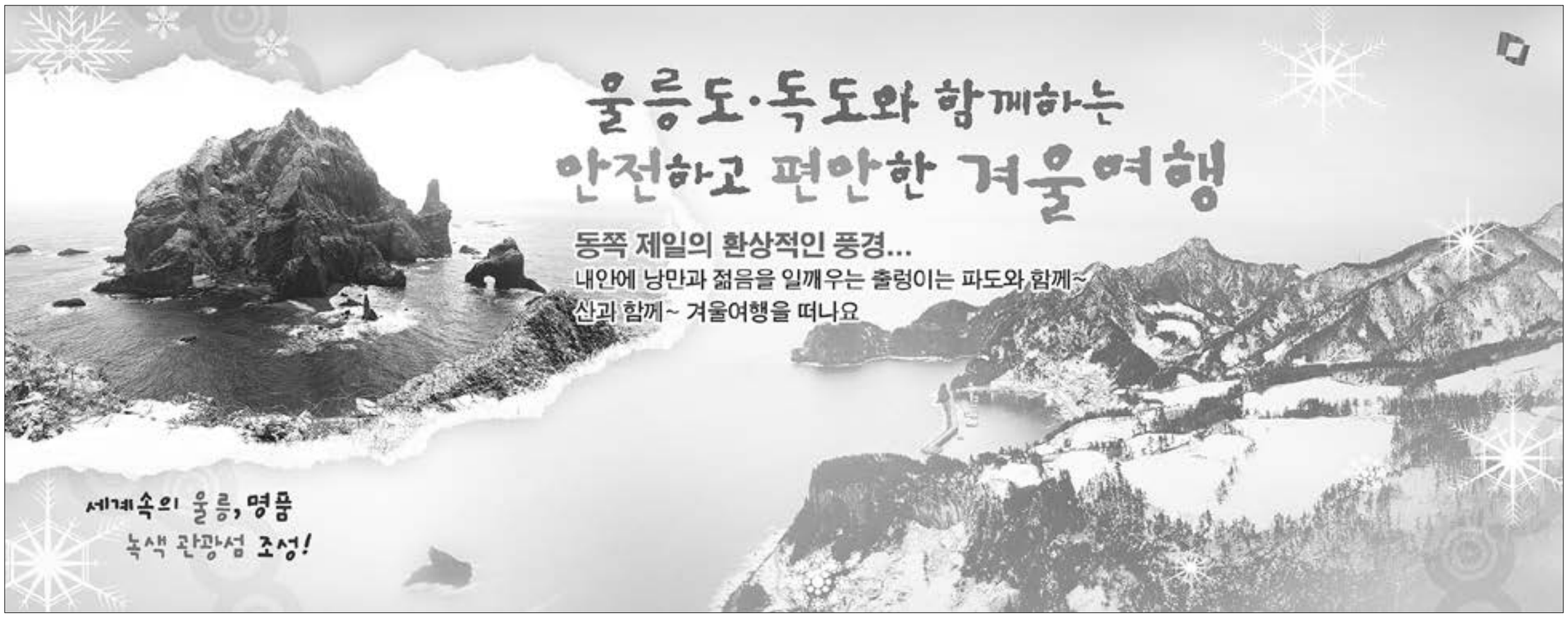
경주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21일 대회의실에서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100여 개 기업을 초청해, '수출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와 경주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수출 지원정책을 홍보하고, 세계 G2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전략적인 설명회로 한중FTA, 중국의 수출입 절차, 중국의 분야별 인증제도,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중국 수출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등 중국 수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중국 무역 전문가를 초청, 진행했다.

아울러 수출 지원정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통상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우수한 기술이나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력이나 수출 경험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이병원 기업지원과장은 "앞으로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와 네트워킹을 구성해 내년 상·하반기 별로 해외투자유치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며, 경쟁력 있는 부자도시 조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영천 청도 영덕 울진

김영석 영천시장은 27일 오전 장훈욱 영천소방서장 퇴임식에 참석해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한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27일 오전 후포1리 회관에서 개최되는 '찾아가는 등불교실 수료식'에 참석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27일 병곡면 칠보산웨딩홀에서 개최하는 '법무부 법사랑위원 영덕지역연합회 한마음대회'에 참석한다.

영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수료식 개최

영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1일 센터 회의실에서 2016 하반기 한국어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하반기 교육은 지난 8월부터 시작해 4개월간 주 2회 수준별 2·3단계로 나눠 진행됐으며, 교육생 35명이 참석한 이날 수료식은 성적우수자 대상으로 상장 및 상품 전달과 함께 수료증을 수여하고, 간단한 다과회를 통해 선생님 및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17년도는 법무부 주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결혼이민여성의 국적 취득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의 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김일만 기자

울진군, 연말연시 기부 손길 이어져

울진군은 그 어느해 보다 힘든 연말연시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손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울진라이온스클럽에서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LPG가스쿠폰 50장(200만 원 상당)을 기탁해왔으며, 후포면 수산물상가번영회(회장 정두하)에서도 회원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나눔에 동참한다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접수된 '희망2017 나눔캠페인' 성금 모금액은 목표액인 2억 원을 훌쩍 넘는 3억6000여만 원으로 사랑의 온도 180도를 기록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는 희망나눔과 희망복지지원팀(789-6096) 및 각 읍·면 희망복지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삼 기자

영천시, 말산업 육성 활성화 동력엔진 장착

말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승마 인구 저변확대 집중 육성 지원

영천시가 말산업 육성 및 승마인구 저변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1년 9월 정부의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된 뒤 전국 지자체마다 말산업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영천시는 말산업 핵심전략 추진방안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북대학교 말의학연구소, 대구대학교 말산업 연구센터를 공동 설립해 상호간 말산업육성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경북도,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서울대학교, ㈔한국말산업중앙회 등 각종 학회와 단체들을 대상으로 말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여느 지자체보다 발빠른 행보를 보이며 말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내륙에서는 최초로 국내 말산업특구 지역으로 지정받아 각종 말산업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 말 연관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예산 국도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말산업육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유통체계 구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월 개장한 거점승용마조련센터는 실내조련장, 원형마장, 경매장, 번식장, 마사, 교육장 등 3827㎡ 규모의 신식 시설을 갖춰 농가에서 생산한 승용마와 경주퇴역마를 대상으로 체계화된 조련과정을 거쳐 올 한해 동안 총 70여 필이 전문승용마로 전환순치 조련을 완료했다.

전환순치를 거친 마필들은 경주퇴역마 안전성평가대회 및 영천대마기 전국종합마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지난 10월에 국내 최초로 시행된 승용마 경매를 통해 말사육농가 및 승마인들에게 우수하고 안정적인 승용마를 공급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했으며, 향후에도 승용마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설 경매시장을 여는 등 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말산업 기반 조성 및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말사육농가에 대한 재정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영천시는 올해 민간승마장 보험료 지원사업, 말번식 지원사업, 말조련 지원사업 등에 3억 원을 투입해 말 사육농가 생산기반 확충하고 승마장 운영 경영비를 완화하는 등 시책사업을 꾸준히추진한 결과, 사육농가에 대한 재정부담을 감소시켜 국내 말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했다.

한편,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스타영천승마아카데미 운영, 학생승마체험 사업, 스타유소년 승마단 창단 등 미래 승마인구 육성에 집중적인 지원으로 제4회 영천대마기 전국종합마술대회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유소년 승마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김일만 기자

상주-영덕고속도로 개통 '관광영덕' 새로운 시작

영덕군, 고속도로 개통 기념 첫손님 맞이 이벤트 개최

개통 첫 손님 이상욱 씨와 기념 촬영

육지의 섬이라 불리던 교통 오지 영덕이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관광영덕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26일 전구간이 동시에 개통됨으로써 총연장 107.6km인 상주-영덕고속도로는 2009년 12월 14일 착공 이후 7년 만에 완공돼 그 모습을 드러냈다.

고속도로가 개통돼 상주에서 영덕까지 승용차로 3시간 걸리던 거리가 1시간, 안동까지는 30분 정도로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이에 영덕군은 개통 후 영덕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상주-영덕 고속도로 첫손님 맞이' 이벤트를 개최했다.

첫손님에게는 기념촬영과 함께 영덕대게 1박스, 고래불국민야영장 숙박권 및 각종영덕홍보 기념품을 증정하고 스무번째 손님까지 숙박권 및 기념품을 제공해 관광영덕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고 개통 손님들을 축하했다.

이날 개통 첫 손님은 '영주시 휴천 1동에서 오신 이상욱 씨'로 "늦은 시간에 생각지도 못한 환영을 해주셔서 감동을 받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승건 기자

영천 시안미술관, 썰매 만들기 체험행사 열려

영천 시안미술관은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가래실 문화마을을 방문한 가족을 대상으로 겨울썰매만들기 체험행사를 열었다.

무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가래실마을 일대에 마련된 다양한 체험코스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과 함께 하는 추억의 겨울 소풍이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경북도와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16년 경북 혹한기 프로젝트 겨울소풍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는데 시안미술관의 기존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600여 명과 구글 설문지 링크를 통한 사전접수로 신청이 쇄도해 당일 4시간 만에 조기마감되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사전 접수해 선정된 30가족을 비롯해 당일 현장 선착순 참가자 등 총 50가정, 220여 명의 참가자들은 산타복장을 한 가래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무 톱질을 시작으로 직접 제작해 꾸민 나만의 특별한 썰매를 만들었고, 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별별 포장마차에서 준비한 군고구마, 구운 가래떡, 떡볶이 등 추억의 겨울 간식거리로 차가운 겨울 날씨를 따뜻한 정으로 녹이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김일만 기자

울진군, 내년도 현안사업 추진 탄력

국비 7500여억 원 확보 쾌거

울진군이 내년도 추진해야 할 공약 및 현안사업에 국비 7500여억 원을 확보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임광원 군수는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경북도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초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십 차례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설득해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을 기울인 결과 각종 굵직한 대형 국책사업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이뤘다.

내년 3월 본격 착공에 들어가는 국립해양과학교육관 225억 원을 비롯, 금강송을 테마로 동해안의 새로운 휴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 99억 원, 군의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새로운 산림복지공간 조성사업인 백암숲체험교육장 조성사업 22억 원, 죽변항 정비사업 126억 원, 죽변항 이용고도화사업 20억 원, 후포항 1단계 정비사업 82억 원, 올해 8월 착공한 국가거점형 1호인 후포마리나항만 개발사업 85억 원 등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발로 뛴 성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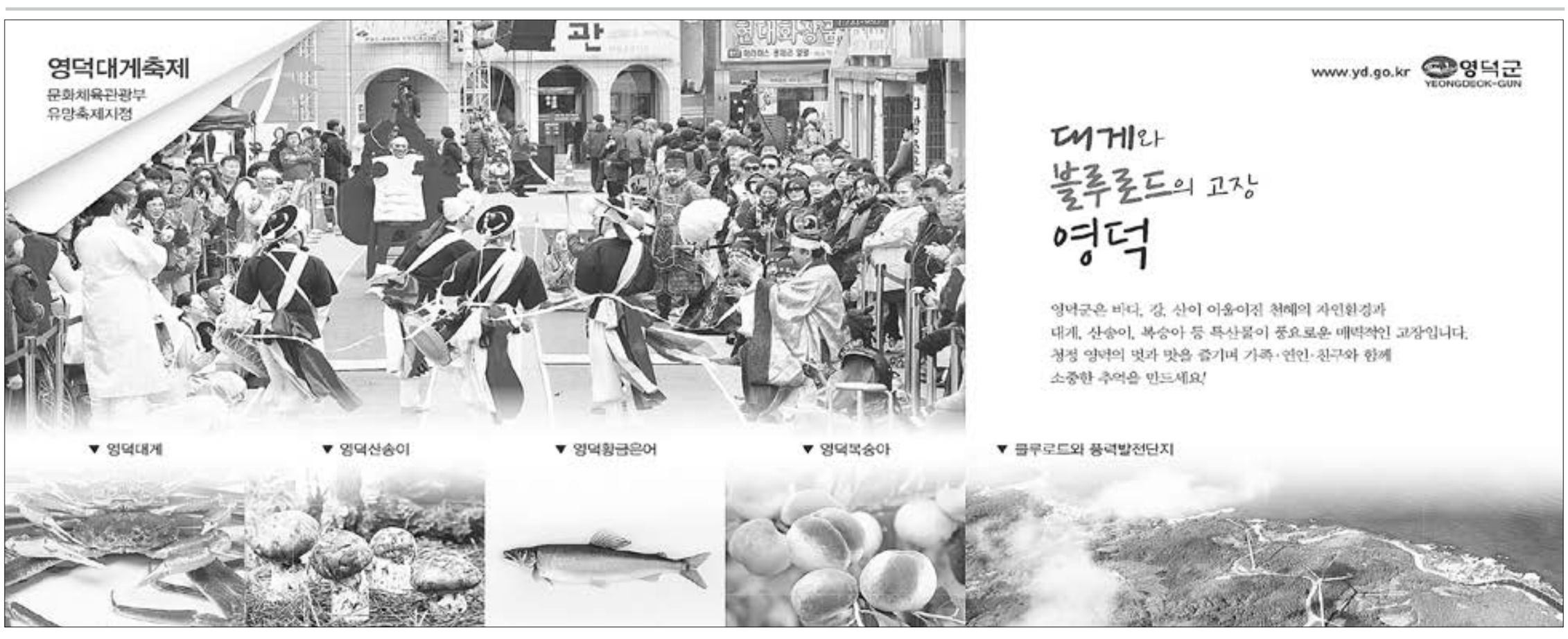
특히, 지역 국회의원인 강석호 의원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로 사회간접자본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영덕-울진간 동해중부선철도, 36호 국도 금강송면-근남면간 국도건설, 평해-영양간 국도 88호 도로건설 등 교통망 확충사업에도 큰 성과를 이뤄 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가 되고 있다. 김형삼 기자

영덕군, 상·하수도 요금 고액·상습 체납자 단수조치

영덕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 요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한달 간 특별징수반 운영을 통해 약 5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추가징수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체납액 총 1억7000만 원에 대한 급수 정수처분 예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영덕군은 그동안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 등을 고려해 납부 독려 활동에만 그쳤으나, 고질 체납자의 체납액 누적에 따라 상·하수도 사용요금 납부 분위기 조성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단수조치를 할 예정이며, 관련법에 따라 재산압류도 실시한다. 김승건 기자



구미 경산 김천 칠곡

남유진 구미시장은 27일 오후 3층 상황실에서 열리는 여객터미널 선진화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27일 오후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6년도 경산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다.

경산시, 2016년 청년 창업지원사업 수료식

경산시는 지난 23일 대구대학교 성산홀에서 관계자 및 청년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청년창업지원사업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은 그동안의 경과 및 성과보고와 함께 청년CEO 수료증 수여 및 시제품 전시 Tour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청년CEO들이 지속적으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설명회 등 후속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도 이어졌다.

경산시는 2010년부터 꾸준히 청년창업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3개 기관(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을 운영기관으로 지정, 30명(팀)의 예비청년창업가를 선정해 창업활동비(1인당 연 1000만 원) 및 창업공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CEO들의 창업을 지원했다. 신경운 기자

칠곡군, 2기분 자동차세 납부홍보 캠페인 실시

칠곡군은 26일 왜관 로얄아파트 사거리 등 4개소에서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앞두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납부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세무과, 읍·면 세무공무원 36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납부 홍보 현수막과 어깨띠, 피켓, 안내문을 활용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꼭 지켜줄 것과 납기후에는 3%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됨을 홍보했다. 이은진 기자

경북TP, 2016 희망이음 프로젝트 상 휩쓸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경북도지사상 등 수상

(재)경북테크노파크가 지난 23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2016 희망이음프로젝트 시상식'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 주목받고 있다.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산업통상자원부와 16개 지역 시·도가 주관하고, 16개 지역 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지역기업-지역인재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사업이다. 학생들에게 지역기업탐방, 취업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힘쓰고 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희망이음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지역기업 탐방프로그램을 총 48회 실시했고 1111명의 학생(고등학생, 대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 결과 경북TP는 이번 2016 희망이음프로젝트 시상식에서 다수의 상을 휩쓸며 주목받았다. ㈜에나인더스트리를 탐방했던 청국장팀(계명대 안현정, 유영민)은 '참된 소리를 전하는 ENA NEWS'라는 주제로 취업관련 실태조사, 길거리 홍보 등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내세워 금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또한, ㈜다이나톤을 탐방한 Ubiquitous Bridge팀(경북대 장시현, 김다경, 서호준, 조수정)은 은상(경북지사상), ㈜한중엔시에스를 탐방한 치열스팀(계명대 김준치, 김재열)은 동상(KIAT원장상), 에스엘㈜를 탐방한 YC팀(영남대 이진욱, 이희성)은 장려상(경북TP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희망이음 경북 서포터즈 팀은 악기제조회사인 ㈜다이나톤을 탐방하고 홍보 UCC를 제작해, 전국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지역 우수기업 알리기 UCC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한중엔시에스(영천)의 정찬수 대리는 2016 희망이음 프로젝트 유공자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재훈 원장은 "앞으로도 희망이음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생과 기업들의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내년에도 지역기업들이 재조명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운 기자

칠곡군, 올 한해 군정 빛낸 10대 뉴스 선정

칠곡군은 지난 26일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16년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결과 1위는 '체납지방세 32억 일거 징수'가 차지했고 2위는 '제4회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28만 명 관람'이 이름을 올렸다.

또, 3위는 '경상북도 군부 최초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뒤를 따랐다.

특히, 칠곡군은 많은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20-30대 654명(29.3%), 40-50대 1127명(50.5%), 60대 이상 415명(18.6%) 등 모두 2233명의 군민이 설문에 참여했다.

칠곡군은 군민들의 최대 이슈거리로 선정된 2016년 10대 뉴스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 밝혔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의 정체성 확립으로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렸을 뿐만아니라, 13만 군민이 함께 하나된 뜻 깊은 해였다"며, "내년에도 그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새로운 칠곡 100년 실현을 향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경산시, 전통시장 화재안전 특별점검

경산시는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100개 이상 점포가 있는 관내 3개 전통시장(경산, 하양, 자인)을 대상으로 화재대비 특별합동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비슷한 재해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산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구조상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소방, 전기, 가스시설 등의 화재예방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경산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안전을 위해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관할 읍·면·동, 상인회 및 전문기관과 협력해 수시점검 및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한 화재의 불씨를 미연에 제거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경운 기자

"AI 차단방역… 김천은 우리가 사수한다"

박보생 김천시장 AI방역 초소시찰 방역관계자 격려

김천시는 지난 16일 전남 해남 산란계농장과 충북 음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 발생을 시작으로 전남 무안, 경기 양주, 충북 청주, 전북 김제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박보생 김천시장은 김천IC, 동김천IC 김천가축시장내 거점소독시설, 지좌동 1046 감천일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축방역초소 및 이동통제소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AI방역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김천시는 발생원인으로 야생철새 서식지를 집중 방역하고 관내 야생조류 집단서식지(감천, 직지사천)주변과 방역취약지구인 가든형 식당, 소규모 가금사육농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김천축협 공동방제단 및 김천시 방역차량을 활용, 중점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의 협조를 얻어 방역취약 토종닭 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산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AI 원천차단을 위해 축산농가는 물론 공수의· 방역요원 및 전담공무원을 편성, 고강도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가 소독방역지원을 위한 소독약, 생석회를 긴급 공급했으며, 발생지역인 충청·전라·경기 지역의 가금류 반입을 금지하는 등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함께 모든 축산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이럴때일수록 축산농가의 모임을 피하고, 철새도래지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 방문을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진 기자

여성친화도시 구미시, '여직원 휴게실' 개소

임산부와 여직원 위한 힐링·소통의 장 마련

구미시가 지난 23일 시청 별관에 임산부 및 여직원들을 위한 '여직원 휴게실'을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남유진 구미시장, 이경문 노조위원장을 비롯, 간부공무원, 여성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휴게실은 점점 늘어나는 여성공무원들에 비해 쉴 곳이 부족하다는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설치된 것이다. 실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 직원들에게 작지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게실은 약 28㎡규모로 크진 않지만, 온돌방 바닥으로 건강침대, 쇼파가 마련돼 임신직원이나 몸이 불편한 여직원들이 잠시 쉴 수 있고, 교양용 도서도 비치돼 있어 잠시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거나 직원들 간 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될 것이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크리스마스 깜짝 선물처럼 이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가사와 일을 병행하는 여직원들에게 작지만 소소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여직원뿐만 아니라 전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후생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은진 기자

문경 상주 고령 성주

이정백 상주시장은 27일 상주시실내체육관(신관)에서 개최하는 'KBS 전국노래자랑 상주시편' 촬영 현장을 방문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27일 고령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고령 청년회의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27일 오전 군수실에서 열리는 '클린선도기업 지정서 전달'에 참석한다.

(사)한국여성농업경영인 고령연합회 정기 대의원 총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고령군연합회(이하 한여농)는 지난 23일 오후 농업인 회관에서 한여농 군 임원 및 읍·면 회장단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제7대 한여농임 원(회장 박순선, 부회장 장영숙, 박미성, 정해경, 김정민, 감사 서정인, 강정자)을 선출했으며, 2017년 사업계획(안)은 2017년 1차 이사회 때 위임하기로 했다.

손정석 기자

성주군, AI 방역활동 강화

최근 AI 청정지역이던 영남에서도 김천시 지좌동(야생조류) 및 양산 상북면(산란계) 등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자 성주군은 도내 추가 확산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방역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군은 철새를 통한 관내 고병원성 AI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3일 낙동강변 선남면 야구장, 유채꽃밭 낙동강 둔치 등 고병원성AI 유입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곳에 출입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차량를 통한 소독을 시작했다.

또한, 초전 용봉리 축산습지 내에서도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 다수가 발견됨에 따라 지난 23일 출입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소독을 시작하는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과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군은 이외에도 관내 산란계 농장 및 알판매 차량 세척 및 소독조치와 알 운반차량 세차증명서 휴대, 산란계 도축 출하시 정밀검사 등으로 방역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노균 기자

성주군, 사드배치 관련 협의 국방부 방문

지난 22일 김항곤 성주군수 배재만 군의회의장 함께 방문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적극 이행 강력 요청

김항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의장은 지난 22일 사드배치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국방부(황희종 기획조정실장 등)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가감 없이 전하며, 사드배치와 관련한 일정들을 성주군과 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적극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사드배치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 논의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해 성토하고, 국방부와 행자부 등 범정부차원의 지원책 논의가 활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성주군의 요청사항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한편, 성주군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해 사드배치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박노균 기자

문경시, AI관련 하천변 일제 소독 실시

하천변 야생조류에 대한 대규모 AI 차단방역 나서

문경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경북 도내 경산 하양읍 금호강과 김천 지좌동 감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가 검출되는 등 AI 발생 위험도가 상당히 고조됨에 따라 관내 하천변 야생조류에 대한 대규모 차단방역에 나섰다.

시에서는 지난 23, 24일 이틀간 시, 가축방역본부 경북도서부지소, 축협, 민간단체(금천영농조합법인 대표 이효진)와 연계 야생조류 방제단을 구성해 보유한 방역차량(일반소독차량 4대, 광역방제기 차량 1대)을 이용해 관내 하천에 대한 대규모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방역에는 민간인이 참여한 대규모 방역 소독계획으로 민간에서 보유한 광역방제기 차량 사용으로 소규모 방역차량으로 효과가 적은 광활한 하천변 고수부지 방역효과 제고에 한몫을 했으며, 고병원성 AI가 종식될 때까지 야생조류 방제단을 주기적으로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문경시는 국내 AI 발생 심각단계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2월 16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에 방역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SMS 문자발송 및 농가별 예찰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예찰을 강화하는 등으로 AI 차단방역 에 한겨울에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 소독 및 야생조류 유입방지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읍·면·동 및 관련단체에서는 가금사육 농가에 대한 홍보 및 주기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농가의 방역 의식을 강화 하는 등으로 우리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국내 AI 종식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세영 기자

상주시 화북면, 2016년산 건오미자 수매

관광화북면 대표 농산물 오미자로 농가 소득 증대

상주시 화북면의 대표 농특산품 중의 하나인 건오미자를 지난 23일 중화농협화북지점에서 수매를 실시했다.

이날, 2016년산 건오미자 수매 물량은 14톤(4억6000만 원 상당)을 수매했는데, 이번에 수매한 물량은 중화농협화북지점에서 KGA(한국인삼공사) 및 전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으로 납품이 된다.

화북면 오미자 생산농가는 121호, 재배면적 55ha, 연간 생오미자 생산량은 495톤 정도로 면 전체 농가 조수익이 50억 원에 이른다.

특히, 지금 출하되고 있는 건오미자는 용도가 주로 차로 끓여 먹는데, 일반적으로 각종 성인병예방과 숙취해소, 자양강장 및 치매예방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정섭 화북면장은 "화북면은 오미자 재배환경이 맞고, 우수한 품질의 오미자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 만큼,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관광화북면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상품화해 농가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고령향교 대성전, 다산 장육당 유형문화재로 등급 상향 조정

문화유산의 가치 향상, 위상 정립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보존, 관리

고령군은 관내 산재돼 있는 문화유산 중에 경북도 문화재자료 제229호 고령향교 대성전 및 제501호 장육당이 유형문화재로 등급(종별)이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령향교는 1701년 중건, 다음해 2월 현 위치에 자리잡게 됐으며, 전학후묘(前學後廟, 향교 전면에 강학공간인 명륜당, 후면에 제향공간인 대성전이 위치)형식으로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대성전 내부는 통칸으로 바닥은 우물마루로 돼 있으며, 상부는 연등천장으로 돼있다. 전면은 쌍여닫이 판문을 세우고 벽은 판벽으로 마감했으며, 측면과 배면 벽체 하부는 판재측벽, 상벽은 회벽으로 마감 됐으며. 창방부터는 모로단청을 칠해 마감했다.

주초석은 운두가 높은 원형주초와 귀갑무늬주초를 혼용하고 있으며, 기둥 위에는 초익공으로 살미 끝을 90도 정도 사절했다. 지붕구조는 접시받침 없는 사각 동자주와 파련대공을 세운 5량가 구조이다.

고령향교 대성전은 문화재 지정되기 이전부터 향교의 유지 보수를 위해 보수공사를 진행, 유지 보존에 힘써왔으며, 현재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전형적인 영남지역 향교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어 유형문화재로 등급(종별)이 조정되며, 고령향교 명륜당 및 빈흥재 등은 기존 문화재자료로 관리될 예정이다.

장육당은 입향조 이지화(李之華)의 아들인 이윤(李玧)이 1671년에 건립한 전의이씨 다포공파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1604년경에 건립한 대구 달성 하빈에 전의이씨 소유의 하목정과 같은 T자형으로 건축수법이 비슷하다. 자연석 기단 위에 4칸의 방과 우측에 1칸의 누마루가 있고, 전면에 가로 세로 각각 2칸의 정방형 마루가 전면부를 구성하는 T자형 건물로 달성 하목정과 경북지역에 예천 야옹정과 성주의 한주정사 등이 있으며, 특이한 평면 구성을 하고 있다.

장육당은 5량 가구의 팔작지붕에 부연이 있는 겹처마로 구성돼 있고 겹처마의 연목을 잡아주는 평고대는 조선 전기 건축양식의 통평고대로 고식(古式)의 수법을 간직하고 있으며, 회첨부분에는 골추녀 회첨이 없이 연목을 자체적으로 맞대어 두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 차례 중수를 해 부분적인 변형(창호 일부 등)이 있으나 보존상태는 양호하며, 기존의 지형을 가급적 변형시키지 않고 건물을 세웠다.

일반 사가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겹처마 구성과 조선 전기 건축수법인 통평고대(지붕의 서까래 위에 놓이는 평고대와 착고막이를 하나의 부재로 만든 것), 그리고 특이한 평면 구성인 T자형 평면 등 특징적인 건축기법 등이 인정돼 유형문화재로 등급(종별)이 조정됐다.

고령군은 고령향교(경북도 문화재자료 제229호), 장육당(경북도 문화재자료 제501호) 등을 지난 7월 11일에 문화재 종별 조정을 신청, 지난 9일 경북도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제8차 회의에서 기존 문화재자료에서 유형문화재로 등급(종별) 상향조정 되는 안건을 통과해 곧 도보 고시를 걸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문화재 종별(등급)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고령군에 산재돼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 향상 및 위상을 정립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보존 및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곽용환 고령군수는 "문화재는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으로 앞으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를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정석 기자

안동 예천 군위 의성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은 27일 오후 만남의광장에서 열리는 안동시장애인단체협의회 송연 행사에 참석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7일 금성119지역대 신청사에서 열리는 금성119지역대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27일 오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민 설명회에 참석한다.

김명호 경북도의원 4년 연속 '친환경 최우수 의원' 선정

김명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안동)이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선정하는 친환경 최우수 의원에 4년 연속으로 뽑혔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는 전국 250여 개 지방자치단체 3500여 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친환경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해 온 광역의원 17명과 기초의원 20명을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평가기준은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 등의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더불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에너지, 건강, 조경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광의의 개념이 폭넓게 적용됐다고 밝혔다.

김명호 의원은 6년 반 동안 70여 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특히,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와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장려 조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친환경 축산업 육성 조례' 등은 친환경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했으며, '자연환경 보전 조례'와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환경교육 진흥 조례',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 등 환경관련 조례를 일부 또는 전부 개정함으로써 환경정책의 법적 제도적 환경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4년 연속 친환경 최우수 의원에 선정된 김명호 도의원은 "오랜 세월 환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께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심부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용구 기자

예천군, 올해 지방세 20% 이상 초과 달성

올해 지방세 529억 징수 전망

예천군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자동차등록 및 부동산거래 증가 등으로 지방세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군의 올해 지방세수 목표액은 총 439억 원(군세 147억, 도세 292억)으로 11월 말 현재 501억 원(군세 170억, 도세 331억)의 세수를 확보했으며, 연말까지는 목표액보다 20%이상(90억 원)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지방세 세입증가요인은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에도 도청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및 상가분양 등 지역 내 부동산거래 활성화, 전입에 따른 인구와 자동차등록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로 지방세 목표액이 초과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년 누적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번호판 합동영치팀을 구성해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했으며, 채권압류 등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 것도 세수를 높인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도청신도시(호명면 산합·금능리)내 각종 개발사업으로 올해 77억 원, 2017년도 115억 원 등 2018년까지 350억 원 이상의 순세입이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내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를 590억 원(군세 165억, 도세 425억)으로 정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팜플렛 배부, 예천군 소식지 납부 홍보,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강화,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 활동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과 편리한 전자납부 서비스 제공, 성실납세자 추첨 등으로 세정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군민을 위해 더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정을 펼치겠다"며 세정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용구 기자

안동시, AI·독감 확산에 해맞이 행사 취소

일출봉 해맞이 행사 전면 취소
하회마을 해맞이 행사 취소
AI·독감 방지 시민 협조 당부

안동시는 2017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시민의 안녕과 지역의 발전을 기원하고 경북의 중심도시 안동의 도약을 기원하는 '2017 일출봉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산과 김천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전국적으로 AI 확산(I에 대한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과 함께 독감도 빠르게 유행하면서 안동시는 심각한 현 상황을 감안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대규모 행사를 당분간 자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매년 개최해 오던 녹전면 녹래리 일출봉 해맞이 행사를 청정 안동 축산을 위해 아쉽지만 부득이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아울러 하회마을에서 예정된 해맞이 행사도 취소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해맞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매년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과 해맞이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안전한 '일출봉 해맞이 행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안동경찰서, 안동소방서, 일출사신도회, 녹전면자율방범대, 녹전면부녀회에게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AI 및 독감방지를 위해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의성군, 고병원성 AI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

의성군은 전남 해남,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인접지역으로 확산되고,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방역조치사항 점검 및 대책 강화를 위해 김주수 의성군수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지난 23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한 재난총괄부서인 안전과와 유통축산과 및 유관기관 등 13개 협업부서가 참석해 관내 가금류 사육현황 및 방역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AI발생에 따른 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의성군은 현재 고병원성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점소독시설(봉양면 강변길 656, 비안면 강변길 932)을 활용한 소독시설 운영 및 축산농가 1일 1회 이상 전화예찰, 가금류 이동 통제 등 관내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작업에 힘을 쓰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철저한 자체 소독 및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 드리며,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박재성 기자

"어린이집 보육환경 향상을 위해 뛰겠습니다"

군위군 '2016년 부모모니터링단 지원사업 평가회' 개최

군위군 백송스파비스 관광호텔에서 지난 22일 '2016년 부모모니터링단 지원사업 평가회'가 개최됐다. 이날 평가회는 도청 관계자 및 시·군 담당 공무원, 부모모니터링 단원 및 경북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개최됐다.

'부모모니터링 평가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2016년 한 해 동안의 부모모니터링단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2016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결과 2099곳 어린이집 중 1331곳(63.4%)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됐으며 부모모니터링 사업은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어린이집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가회에 참석한 부모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지내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힘써 달라"고 소감을 전했으며, 이원경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평가회에서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2017년도 부모모니터링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의성군, 제1기 청년리더 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의성군은 지난 23일 미래 의성군을 미끌어갈 인재양성 차원에서 개설된 '의성군 제1기 청년리더 아카데미' 수료식을 의성종합복지관 소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제1기 의성군 청년리더 아카데미'는 35명이 수강, 28명이 수료하게 되며 지난 9월 29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지난 23일까지 3개월간 3개 테마별(지역이야기/경제이야기/지역과 문화이야기)로 나눠 총 11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이번에 수료하는 교육생들은 군내 주요단체, 기관 등에서 청년리더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의성군은 이번 제1기 청년리더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내년부터는 기반구축, 교육, 네트워크 구축, 창업지원 등 다양한 추진과제 및 사업을 통해 지역청년 인재를 지역내에서 발굴·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청년리더 양성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박재성 기자

안동시, 토지행정업무 추진 창의적인 시책 발굴 큰 호응

2016년 안동시는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편의 증대를 위한 창의적인 시책들을 발굴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찾아가는 지적민원실'은 올해 12개 농촌마을을 방문해 현장에서 민원상담 후 272건을 처리했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간소한 절차에 의한 46건의 토지분할로 토지이용을 증대시키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지적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한 '조상땅찾기'와 본인의 토지를 조회해 주는 서비스로 311명의 시민들에게 토지 위치를 알지 못해 소홀히 관리됐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140개소에 대한 행정지도와 5881건의 부동산실거래가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섰다.

'녹전 신평1지구(299필지, 22만1000㎡)'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고품질의 디지털지적을 구축해 지적 경계의 정확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했다. 현재 예안면 정산1지구(270필지, 35만6000㎡)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용구 기자

영주 봉화 청송 영양

장욱현 영주시장은 27일 오전 시청강당에서 개최되는 '영주시↔인천시 동구 자매결연 체결식'에 참석한다.

박노욱 봉화군수는 27일 오전 군청 군수실에서 봉화교육지원청 장학기금 전달식을 가진다.

봉화군, 최신 거점소독세척시설 완공… 26일부터 본격 가동

봉화군은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한 상시 거점소독시설이 지난 24일에 완공돼 2일간의 시험가동을 거쳐 26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서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경북도를 제외하고 전국 가금농가에 확산되고 있으며, 가금류 일시이동정지 및 발생 시·군 닭, 오리의 비발생 시·군으로의 반출금지, 철새도래지 방역강화 등 방역대책에도 불구하고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봉화군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농가예찰전화 및 방역홍보, 밀집사육지역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양계밀집지역 인근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을 설치하고 축산차량에 대해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었으나 상반기부터 추진한 거점소독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축산차량에 대해 보다 철저한 소독이 가능하게 됐다.

시설입구에서 바퀴를 세척하고, 소독시설 내에서는 차단막으로 밀폐 후 스팀 및 오존, 자외선 소독을 통해 차량 내·외부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최신 설비이다.

또한, 차량 운전자에 대한 대인소독 및 차량매트 세척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소독필증 자동발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박노욱 군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의 관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금농가는 축사소독 및 출입차량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특히 거점소독시설에서 발행하는 소독필증을 휴대하지 않은 축산차량은 절대 농가에 출입 할 수 없도록 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전상기 기자

영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신축 이전준비 '착착'

영주동 → 가흥동 신축 이전 공사 마무리 단계 2017년 1월부터 운영

영주를 찾는 방문객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영주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영주동에서 가흥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영주시와 주식회사 영주정류장(대표 최현순)은 영주시의 첫 이미지를 심어주는 관문이기도 한 시외버스터미널을 반세기 동안의 영주동 정류장 시대를 마감하고 가흥신도시로 신축 이전해 이용객을 위한 충분한 휴식 공간인 대합실, 편의시설, 공용 주차장 등을 갖추고 2017년 1월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 시외버스터미널은 '2015년말 기준 이용객수가 월 평균 4만여 명으로 이용객 대비 공간이 협소하고, 지난 1975년 건립돼 40여 년 오랜기간 운영으로 시설노후화는 물론 편의시설 부족과 주택밀집 지역에 위치해 교통체증 유발 등으로 이용객들이 수십년 동안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에 이전하는 영주시외버스터미널은 가흥동 703-3번지 일원에 대지 8240㎡, 연면적 1469㎡의 2층 규모로 민자 50억 원을 투자해 대합실, 편의점, 커피숍 등을 갖춘 터미널로 다음달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시는 기반시설인 진입도로와 120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더했다. 가흥 신도시 상권 형성과 적십자 병원 신축 공사가 마무리 되면 이용객들의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영주 시외버스터미널 가흥동 이전으로 영주를 찾는 많은 방문객과 시민들이 보다 나은 대중교통 편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터미널이 옮겨간 자리에는 시가 많은 노력 끝에 유치한 대형 영화관과 쇼핑몰이 함께 들어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터미널 이전에 따른 상권유출 방지와 구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에 기여 할 것"이라 말했다.

영주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들어서는 영화관은 지상 4층 규모로 1-2층은 복합쇼핑몰, 3-4층은 영화관 6개관으로 약 800석의 관람석이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민간투자업체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건축설계 및 인허가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영화관은 내년 추석에 맞춰 개관될 예정이다.

전상기 기자

영양군, 국비 확보 박차

농업생산·유통기반 구축 위해

영양군은 매년 거듭되는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 안정생산 및 기반 유지를 위해 국비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농산물을 장기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총사업비 16억 원(국비 5억 원)을 투입해 영양농협과 남영양농협에 2016년에 660㎡, 2017년 990㎡의 사업을 지원하게 됐다.

또한, 집단화된 과수지구에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해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하는 과실전문생산단지조성사업(2년차 사업)으로 올해 석보면 주남지구(주남·홍계지구, 42ha)는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영양읍 상·하원지구(상원·하원·삼지·대천리 일원, 45ha)는 사업예정지구로 선정돼 현지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로써,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8억 원(국비 22억 원)을 확보, 해당지구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던 용수부족, 경작로 협소 및 배수처리 불량 등이 개선돼 농업생산력이 한 단계 더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매년 거듭되는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앞으로도 국비사업 신청을 통해 부족한 농업생산·유통기반을 구축 및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윤동 기자

영양 "우리콩 메주로 집에서 간편하게 장 담그세요"

'영양 반딧불이 우리콩' 메주 홈쇼핑 판매 시작

영양고추산업특구에 입주한 ㈜네이처셀(대표 라정찬)에서 생산하는 '영양 반딧불이 우리콩 메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홈쇼핑 채널을 통해 제품 판매를 시작한다.

영양산 콩 100%로 생산되는 영양 반딧불이 우리콩 메주는 지난해 1만 세트(메주 5만 개)를 완판 함에 따라 생산규모를 늘려줄 것을 요청받아 경북도와 영양군의 지원을 통해 올해 생산라인을 증설해 2만5000(메주 12만 5000개)세트를 생산·판매할 준비를 마쳤으며, 2017년 1월 3일 17시 5분-17시 50분까지(45분간) NS홈쇼핑 방송을 시작으로 3월까지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찾아갈 계획이다.

(주)네이처셀 관계자는 '자연에서 깨끗한 원료로 세포를 건강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2011년 영양고추산업특구에 장류공장을 준공했고 2012년부터 고추장, 된장, 전통메주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홈쇼핑에 준비한 메주 전량이 매진되는 등 소비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차별화된 판매 전략과 고품질 제품생산 등을 통해 우리지역의 핵심 향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처셀에서 생산되는 메주는 황국균과 고초균을 사용해 현대적인 제조공정을 접목했으며, 2015년, 2016년에 완판된 메주세트는 영양 우리콩 메주 5장(5kg)과 신안군 임자도 천일염 3kg, 영양산 건고추, 참숯, 20L 누름독까지 풀세트로 구성해 집에서 간편하게 장 담그기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위생을 중요시하는 3-40대 주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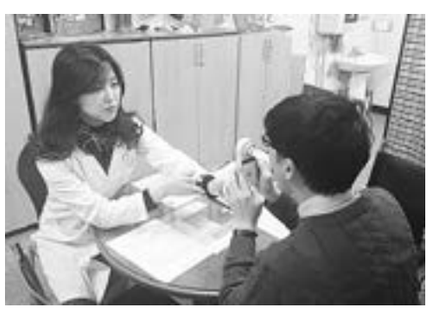
권영택 영양군수는 "(주)네이처셀 영양공장에서 생산된 전통메주, 고추장, 된장은 우리지역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내 제조업체와 상생하는 가운데 전통메주는 영양고추유통공사에 수매한 100톤의 영양산 콩만 100% 사용함에 따라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한, ㈜네이처셀(대표 라정찬)은 올해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 생산이 필요할 경우 내년도에는 사업장 추가건립 및 라인증설 등을 통한 사업 확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윤동 기자

영주시보건소 '금연클리닉' 큰 호응

시민들에 금연프로그램 지원 맞춤형 금연상담…'책임관리'



영주시보건소 금연클리닉은 금연을 결심한 시민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연프로그램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현재 영주시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인원은 1240명으로 6개월 금연 성공률은 55.9%로 나타났다.

금연클리닉은 금연전문의와 금연상담사 2명의 맞춤형 금연상담으로 금연의약품 처방, 금연보조제 및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공 등을 통해 금연을 결심한 시민이 금연을 성공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해 주고 있다.

또한, 영주시보건소는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금연교육 43회(5503명), 캠페인 19회(9700명)를 실시해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을 알려 금연 및 흡연예방에 앞장서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3일부터 출고되는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2017년 12월부터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돼 이를 준수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영주시보건소는 금연클리닉(639-6439)을 방문해 금연에 꼭 성공하시길 당부했다.

전상기 기자

MISOPE
모다아울렛 3층 미소페
대표 고 재 운 대구시 달서구 호림동 16
010-2327-5555 / 053-593-4838

이웃돕기의 모범답안 '바로 이것'

수성1가동 성금위원회 25년째 기금운영 이자로 이웃돕기에 나서 눈길

동(洞)단위 단체에서 기금 운영으로 이웃돕기에 나서 화제다.

대구 수성1가동 성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수성1가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2016년 사랑나눔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과 소년, 소녀 가장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수성1가동 협력단체와 경신라이온스클럽, 향토진흥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저소득층 주민과 학생 38명에게 이웃돕기 성금 890만 원을 전달했다.

1991년도에 발족된 수성1가동 성금위원회는 기금 4000만 원으로 출발해 현재 500억 원의 기금이 수성1가 새마을금고에 예치돼 있으며, 25년째 매년 연말에 발생하는 이자로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이웃돕기를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 단위에서 기금을 마련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며, "앞으로도 이런 참신한 기부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재현 기자

십시일반 모은 회비가 저소득층에 희망 주다

새대구 로타리클럽 화원읍에 후원금 전달

새대구 로타리클럽(회장 박재덕)은 지난 9일 화원읍 관내 어려운 이웃 10가구에 후원금 250만 원(가구당 25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지난 1년간 회원 50여 명이 십시일반 모은 회비로 마련됐다.

대표로 전달한 박재덕 회장은 "추운 겨울철을 맞아 작은 정성들이 모여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강추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대구 로타리클럽은 지역 복지관, 장애인단체 등에서 김장김치 나누기, 무료급식 등의 자원봉사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가산면 가사랑화, 소외받는 이웃에게 따뜻함 전달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 기탁

가산면 가사랑회(가칭 가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김을태)는 지난 22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칠곡군 가산면에 전달했다.

가사랑회는 평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기탁해 왔으며 이번에도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김을태 가사랑회장은 "우리 주변에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권헌욱 가산면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가 한층 더 힘들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달성군 하빈 이종건 씨, 농어촌청소년대상 본상 수상

지역청소년육성 위해 힘쓰고 한우사육 신기술도입과 체계적 영농운영으로 소득증대 이룬 우수한 청년농업인 인정받아

달성군 하빈면의 축산농업인 이종건 씨(26세)가 지난 22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36회 농어촌청소년대상 시상식에서 농업분야 본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이 후원해 1981년부터 매년 시행중인 이 행사는 농어촌에 정착의지가 확고하고, 농어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젊고 우수한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격려로 창조적 미래세대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농어촌 후계자 육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수상자인 이종건 씨(하빈면 하산리)는 달성군4-H연합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청소년육성을 위해 힘쓰고, 한우사육 신기술도입과 체계적인 영농운영으로 소득증대를 이룬 지역의 우수한 청년농업인으로 인정받아, 현지 심사 및 각계의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본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편, 달성군(군수 김문오)에서는 이미 2010년 이승현 씨(가창면), 2013년 설의철 씨(다사읍)가 본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여은 기자

대구태화라이온스클럽, 이웃돕기 성품 전달

어려운 이웃 위해 라면 100박스 전달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대구)지구 대구태화라이온스클럽(회장 나현협)은 26일 두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겨울을 맞이하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라면 100박스(11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류재현 기자

대구도시철도, 희망을 안고 달리다

연말연시 희망 테마열차 운영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에서는 연말연시 도시철도 이용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3호선 열차 1개 편성을 '희망 테마열차'로 조성해 운영한다.

'희망 테마열차'는 크리스마스, 새해 일출 등 다양한 컨셉으로 12간지 동물인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등을 캐릭터화해 열차 내부를 래핑했으며, 2017년 1월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이번 희망 테마열차 운영은 관광수요가 줄어드는 겨울, 하늘열차(Sky Rail)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희망자에게통째로 대여하는 이벤트열차로 운행할 예정이다. 개인, 단체 등이 대여를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대여한 이벤트열차 내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 물품 반입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26일에는 지역 복지기관 등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초청, '희망&뮤직 특별열차'를 운행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성악, 전자첼로 공연과 마술쇼, 레크레이션 등 색다른 추억을 선사했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연말연시 희망 테마열차 운행이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 메시지가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3호선 관광 인프라 강화를 통한 수송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우 기자

경북대병원, 서문시장 피해상인에 사랑 나눠

서문시장 화재 피해상인 돕기 성금 3000만 원 전달

경북대병원은 대구 서문시장 피해상인 돕기를 위한 3000만 원 성금 전달에 동참했다.

경북대병원 조병채 병원장은 지난 20일 대구시청을 방문해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병원 전직원들이 화재로 생활터전을 잃은 시장 상인들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모은 성금이다.

경북대병원이 전달한 성금은 대구시를 통해 대구시가 진행하는 시장 복구 및 상인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진희 기자

"이 쌀이 따뜻한 밥 한끼 됐으면…"

현풍면 지2리 부녀회 이웃사랑 쌀 360차kg 기탁

현풍면 지2리 부녀회(회장 김정자)는 지난 23일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쌀 360kg을 현풍면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쌀은 추운 겨울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지2리 부녀회가 마을 부녀회 기금 및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후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현풍면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정자 회장은 "주위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가정에 전해져 따스한 밥 한 끼가 됐으면 한다"며, "일상에서 꾸준히 나눔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국일 현풍면장은 "추위와 생활고로 힘겨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칠곡양돈영농조합법인 윤석호 대표, 장학금 기탁

칠곡양돈영농조합법인(대표 윤석호)은 지난 22일 칠곡군 지역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재)칠곡군호이장학회(이사장 백선기)에 호이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은진 기자

수성구, 해외 의료봉사 단체에 감사패 전달

대구이글로타리클럽 회장과 신성로타리클럽 회장에 감사패 전달

대구 수성구는 지난 23일 오전 구청장 접견실에서 지난달 수성구 해외 자매도시인 필리핀 바탕가스시를 방문해 의료봉사활동과 보건소 보수공사 봉사활동을 실시한 대구이글로타리클럽 회장과 신성로타리클럽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류재현 기자

MISOPE
모다아울렛 3층 미소페
대표 고 재 운 대구시 달서구 호림동 16
010-2327-5555 / 053-593-4838

봉화군, 농업기술 현장연구분야 최우수상

현장연구와 새로운 기술 보급 분야에서 최고 평가

봉화군은 지난 23일 경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한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회'에서 2016년 농업기술 현장연구 '최우수' 농업기술센터 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종합평가회에서는 종합 최우수기관과 현장연구, 지원기획, 기술지원, 생활지원, 연구개발, 특수시책 등 6개 분야 평가에서 각 분야별 성과가 우수한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시상식이 있었으며, 봉화군은 현장연구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봉화군은 경북도에서 유일한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기관과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으로 친환경농산물생산 확대 기반조성과 과수분야 등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연구와 새로운 기술보급 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

박노욱 봉화군수는 "5년 연속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우수기관으로 지정돼 봉화군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현장연구를 통한 새로운 기술도입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기술연구지원을 확대해 다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빠르게 대처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전상기 기자

청송군농기센터, 농촌진흥청 우수기관상 수상

새로운 성장작목 육성 기반 마련… 농업경쟁력 향상 노력

청송군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2016 지방농촌진흥기관 평가에서 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돼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농촌진흥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농업조직 성과향상에 기여한 우수 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 해 동안 추진한 농촌지도사업, 특수시책, 조직운영 등 지표를 가지고 평가했다.

군센터는 2015 도단위 기관상 수상에 이어 올해 중앙단위 평가도 수상했으며, 농업인대학을 통한 전문농업인 육성, 농촌관광사업 활성화, 사과가공지원센터 운영, 사과·고추 명품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사과위주 농업에서 복숭아, 자두, 토종 두릅 등 새로운 성장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업경쟁력 향상에 노력해왔다. 김용구 기자

영덕군농기센터,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선정

농업 연구개발 분야 기여

영덕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3일 경북도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2016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연구개발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지역농업특성화사업 해방풍 재배기술과 해방풍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 연구 개발, 미생물 활용실증시험, 엽채류 연작장애 해결방안 마련 등 농업 연구개발 분야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성과는 영덕군의 전폭적인 지원과 영덕 농업인의 배우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영덕군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교육·훈련으로 자기개발을 해나가는 직원들의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김승건 기자

의성소방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훈훈'

성금 150만 원 기탁

의성소방서는 연말을 맞아 지난 22일 의성문화체육회관에서 개최된 '희망 2017년 의성군 이웃돕기 성금 모금 행사'에 참석했다.

의성소방서장(직원 일동) 및 의용소방대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150여만 원을 기탁하며,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재성 기자

한화생명 '해피프렌즈' 청소년봉사단, 연탄배달

지진의 피해가 큰 경주지역에 직장인·청소년봉사자 나눔활동

유난히 추운 동절기를 맞아 지진의 피해가 큰 경주지역에 도움을 전하고자 직장인과 청소년봉사자들이 뭉쳐 나눔활동을 펼쳤다.

한화생명 대구지역본부 임직원과 한화해피프렌즈 청소년봉사단 50여 명은 지난 24일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초수급대상 10가정(경주 서면, 능남마을 일대)에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연탄 2000장과 식료품(쌀, 라면) 10박스를 배달했다.

연탄배달을 처음해 보는 고등학생 봉사단원들은 낯선 난방환경에 놀라기도 했고 추운 날씨와 무거운 연탄 나르기에도 불구하고 환한 웃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했다.

이날 대상가정 홀로어르신들은 학생들이 많이 몰려와 연탄을 나르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며, 굵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번 연탄배달활동은 2014년 비산동 쪽방촌을 시작으로 매년 50여 명의 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배달' 자원봉사활동으로 3년째 실시되고 있으며, 한화생명 대구지역본부가 후원하고 월드비전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한다.

활동에 참가한 대구성화여자고등학교 전소희(18세) 양은 "낯설고 무거운 연탄을 직접 배달해 보니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지만 동네 어르신들이 따뜻한 인사말로 격려해 주셔서 보람된 봉사활동을 할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윤용찬 기자

9만 명 즐긴 '상주외남고을곶감축제'

제6회 상주외남고을곶감축제 성료 면단위 축제로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 창출 생산적인 축제 자리매김

상주시 외남면에서는 '곶감이랑 노올자~~ 추억 속으로 곧 감'이라는 주제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상주곶감공원에서 '제6회 상주외남고을곶감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에는 외남전통농악단과 지역예술동호인들이 참여, 750년 하늘아래 첫 감나무에서 상주곶감공원까지 상주곶감임금님진상재현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축제가 시작됐으며, '하늘의 선물'인 상주곶감을 예종임금님께 진상하는 모습을 색다르게 연출한 뮤지컬 공연, 극단 둥지의 창작 뮤지컬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곶감'과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을 매일 상연해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 예술문화 축제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야외공연장에서도 매일 매직쇼, 전통무용, 현대무용, 국악 등 다양한 예술장르의 버스킹 공연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감깍기 대회, 감 많이 쌓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에어바운스 놀이시설은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으며, 특히,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낸 상주 곶감송 플레시몹은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 마직막 날인 26일에는 마을단위축제로 각 마을 대표들이 참여한 곶감창작가요제, 감깍기 대회, 외남초등학생들의 문화공연 등을 통해 지역민이 화합하는 화합축제로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축제에는 약 9만 명의 방문객이 찾았으며, 특히 크리스마스날에는 전국에서 약 5만 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아왔다.

축제기간중 곶감은 약 6억 원(예약포함), 지역 농특산물은 1억50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약 50억 원 이상의 상주곶감 홍보효과를 올리는 등 면단위 축제로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생산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했다.

김수식 축제추진위원장은 "축제 준비기간이 짧아 많은 걱정과 염려를 했으나, 주민 모두가 화합해 일심단결해 성공적으로 개최돼 주민들의 자부심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돼 무척 감사하고, 내년에는 더 알차게 준비해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용문 외남면장은 "제6회 상주외남고을곶감축제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으로 '사랑과 나눔이 있는 축제장'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며, 향후 크리스마스 연휴가 되면 상주곶감공원의 특별한 체험과 소중한 추억이 그리워서 다시 찾을 것이며, 특히, 연휴를 반납하고 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주민, 추진위원, 면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여름 대표축제 '봉화은어축제' 3연속 우수축제로

2017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3년 연속 선정

봉화은어축제가 '2017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2015-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선정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로의 면모를 각인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는 전국에서 개최되는 수많은 지역축제 중에서 관광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증하는 관광브랜드로 문화관광축제 선정 20년이 되는 2015년부터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표·최우수·우수축제의 지원기간 한도(일몰제)를 5년 연속 또는 총 10년으로 기간을 한정하고 유망축제는 일몰제를 폐지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2017년부터는 현장평가 비중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신규도입(10%)했다.

또한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전통·향토음식 경험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등 축제 심사기준을 다양화 했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엄격한 선정방식을 거쳐 대표축제(3개), 최우수축제(7개), 우수축제(10개), 유망축제(21개)로 분류, 전국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 총 41여개를 선정했다.

매년 7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꾸준히 방문하며, 18년째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봉화은어축제는 올해 'cool~한 여름, 은어랑 봉화에서 놀아보자!'이라는 주제로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개최됐다.

특히 은어주제관을 대형화하고 수박서리 및 삼굿구이체험을 도입하는 등 가족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형 워터슬라이드와 물난장 시설을 설치, 온 가족들이 함께 추억거리를 만들도록 했다.

또한, 축제장 확대운영을 위해 은어·송이 테마공원에 트릭아트 포토존을 설치하고 은어낚시 체험장과 반딧불이·나비 생태관을 조성했으며, 축제장과 테마공원으로 은어열차를 운행하는 등 다양하고 획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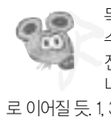
박노욱 봉화군수는 "봉화은어축제의 3년 연속 우수축제 선정이라는 기쁨을 군민과 함께 나누고, 그동안 수고한 (사)봉화군축제위원회와 봉화군민, 관계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2011년부터 4년 연속 유망축제를 거쳐 올해 우수축제로 도약한데 이어 2017년도에 3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과 시설 보완을 통해 우수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여성 문화

원추의 오늘 운세

음력 11월 29일·계미



목적한 바를 소신껏 밀어붙이면 성공할 수. 직장에서도 성실을 다할 때 반드시 승전보가 있겠다. 처음부터 연애로 만난 남녀는 사니 못 사니 하다가 결국 동거생활로 이어질 듯. 1, 3, 7월생 배짱 좋은 여자를 주의하라.

때가 아니므로 애정난이 심할 수. 6, 7, 8월생 심신의 안정과 건강관리에 신경 씀이 좋을 듯. ㅇ, ㅈ, ㅎ성씨 상대방은 멀리 가는데 쫓으려고만 말고 자신의 단점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라. 10, 11, 12월생 푸른색 계통의 옷 피할 것.

ㄴ, ㅈ, ㅍ성씨 모든 것이 마음과 같지 않구나. 끈기와 인내로 노력해야 이뤄질 듯. 애정운에서도 억압은 통하지 않으니 서로가 변화를 통해 대화의 장을 열어봄이 어떨까. 북쪽에서 도움 줄 자 나타나니 협력하면 대성할 수.

성급한 자신감보다 느린 전진이 오히려 탄탄대로로 이어질 수. 혼자 남의 이권을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하니 욕심은 금물. 힘에 겨우면 북쪽사람과 상의하면 길하다. 미혼자 데이트는 남이 길 방향. 함께일수록 더 소중히 여길 것.

참고 노력하면 인정받는 것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만족하면 순조로울 듯. 금전운 순탄하지만 애정 원치 않은 임신으로 마음고생 따르니 6, 7, 8월생 부드러운 윤활유가 필요한 시기. ㅂ, ㅅ, ㅇ성씨 부부 대화의 장 더욱 넓힘이 좋을 듯.

얻은 것이 있다 해 방심은 금물. 더 큰 것 잃을 수 있으니 내 것은 내가 챙겨라. 절약이 최선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애정은 갈등이 뒤따르니 서로가 대화로 화해하고 확실히 매듭을 짓는게 좋을 듯. ㅁ, ㅅ, ㅎ성씨 건강조심. 북쪽은 불길.

서두르지 않고 진행시킨다면 서광이 서, 북쪽에 보이니 힘든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인내하라. ㄴ, ㅊ, ㅍ성씨 마음의 병은 쉽사리 치료가 안 되니 스스로 마음을 비우고 다스릴 줄 알아야 주변이 편안할 듯. 1, 3, 4, 6월생 파란색이 행운.

지연되던 일들이 한 번에 풀리는 길운이기는 해도 환경변화에 주의하라. 세상사람들 모두가 내 마음에 들 수는 없는 법. 상황에 따른 대처가 최선이다. 7, 8, 9월생 노란색은 나약함을 드러내니 피하라. 대인관계를 철저히 할 것.

어둠이 거치고 태양 솟아오르니 희망찬 미래가 보인다. 지난 것 잊고 새로운 것을 위해 준비하라. 7, 8, 12월생 동, 남쪽 사람과 손잡으면 더욱 쉽게 풀릴 듯. ㄱ, ㅂ, ㅇ성씨 눈치만 살피지 말고 사랑 표현을 확실히 하라. 언행조심.

한 가지 일이 풀리면 열 가지 일이 풀리는 운. 5, 10, 11월생 자만심을 버려라. 금전 지출이 예상되니 필요한 곳에만 쓸 것. ㄱ, ㅂ, ㅈ성씨 애정은 삼각관계로 이어질 것 같으니 한길만 택해 만족을 얻을 때 멋진 삶이 보장될 듯. 파란색은 삼가.

ㄴ, ㅇ, ㅎ성씨 방황은 그만하고 상대가 생각해주는만큼 믿고 따를 때 심신의 안정을 찾겠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오해가 없도록 하라. 1, 4, 9월생 우정을 더욱더 돈독히 하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의리임을 알아야 할 때다.

작은 이익에 만족하고 큰 이익을 위해 차분히 내실을 기할 때 대성할 수. 자만심만 버린다면 곳곳에서 좋은 소식 들리겠다. 2, 8, 12월생 사랑하는 사람을 따스하게 대하라. 당신을 믿고 따르는 마음 그 무엇과도 비길 데 없구나.

겨울방학, 갑옷 입은 물고기 친구들과 놀자!

민물고기생태체험관 겨울방학 특별기획전시

'갑옷을 입은 물고기 친구들' 갑각류 3개 테마 22종 전시

경북도민물고기연구센터(민물고기생태체험관)에서는 겨울방학시즌을 맞아 평소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세계 각지의 갑각류 3개 테마 22종 330여 마리를 엄선해 기획 전시한다.

이번 특별기획전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생태체험관내 열대어전시관에서 열리며,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겨울방학 생태여행으로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최고의 체험학습 교육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갑각류는 주로 수중생활을 하는 무척추동물로 전 세계적으로 4만 여종이 있으며, 이번에 전시되는 종류는 새우류 중 생이새우 외 10종 250여 마리, 게 류 중 도둑게 외 2종 20여마리, 가재류 중 블루가재 외 7종 67여 마리 등 전시된다.

'경북도 민물고기생태체험관'은 우리 것이지만 소홀히 여겨져 왔던 토속민물고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2006년 건립됐으며,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종(種)들을 비롯한 고유민물고기 150여종 5000여 마리를 전시해 민물고기 단일테마로 국내에서는 단연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한편, 단조로운 전시방식을 특색 있고 교육적인 볼거리 제공을 위해 매년 이색적인 전시수조설치, 다양한 전시어종 교체 등 갈수록 높이지는 관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철호 경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은 "국내 최고수준의 살아있는 담수 수족관으로 지역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타 전시관과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로 명실상부한 명품 생태체험학습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내수면 생태계 보전 및 자원조성 사업을 확대하고 사라져가는 우리 생물자원의 보호와 멸종위기종의 연구·보존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희 기자

새해, 국악기 하나쯤 배워 보는건 어때요?

해금 강습

대구시립국악단 동계 국악강습회

내년 1월 9일-20일

대구시립국악단은 다가오는 2017년 1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동계 국악강습회를 개최한다.

매년 방학 및 휴가기간을 맞아 열리고 있는 국악강습회는 이번에 제57회를 맞이했으며, 전통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한편, 시민들로부터도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사설기관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강습비로 진행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은 줄이면서, 소규모 클래스 운영으로 강의수준은 높였다. 이번 강습회 과목은 해금, 가야금, 한국무용, 장구, 단소 5과목으로, 가야금과 장구는 강습기간 동안 악기가 제공되며, 해금은 2만 원에 악기대여가 가능하다.

강습시간은 해금과 한국무용이 오전 10시부터 50분간 진행되며, 가야금, 장구, 단소가 오전 11시부터 50분간 진행되므로 2과목까지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시립국악단 상임단원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과목당 2명씩 배정돼 기초부터 상세히 지도해준다. 국악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생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강습 마지막 날에는 수료증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다.

과목당 정원이 15명이고, 마감 시까지 선착순으로 전화접수 받으며, 문의 및 접수는 대구시립예술단 단체운영팀 (053-606-6193/6338)으로 하면 된다.

김진희 기자

동계 올림픽·패럴림픽 연출 맡은 고선웅·양정웅, 그들은 누구인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개·폐막식 총연출로 각각 결정된 연극 연출가 고선웅(48)과 양정웅(48)은 공연계에 가장 핫한 연출가들이다.

▣ '변강쇠, 점 찍고' 히트 고선웅

극공작소 마방진을 이끌고 있는 고 연출은 연극뿐 아니라 뮤지컬, 창극, 오페라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곳에서 러브콜이 잇따르는 인기 연출가다.

연극 '칼로 막베스'와 '푸르른 날에',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 뮤지컬 '아리랑'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과 '한국인의 초상' 등을 잇달아 히트시키며 톱 연출가로 자리매김했다.

어떤 장르든 재기발랄한 상상력으로 자기화하는 장기가 있다. 올해 4월에는 국립창극단과 손잡고 연출한 '변강쇠 점 찍고 옹녀'로 프랑스 공연계의 심장으로 통하는 테아트르 드 라 빌 극장에 입성, 현지 최초로 창극을 소개한 바 있다. 최근 첫 오페라 연출작 '맥베스' 역시 호평 받았다. 최근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주최 '제36회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상'에 선정됐다.

▣ '셰익스피어' 전문가 양정웅

극단 여행자를 이끌고 있는 양 연출은 감각적인 미장센과 드라마틱한 연출로 실력을 인정 받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영국의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1564-1616)의 전문가로 통한다. 셰익스피어 여러 작품을 자신만의 색채로 그려내며 호평 받고 있다.

한국적으로 재해석된 '한여름 밤의 꿈'이 대표적이다. 장구와 북 등 한국 전통악기를 등장시키고 원작의 요정을 도깨비로 바꾸는 등 한국적 색채를 덧입혔다.

고선웅

양정웅

2002년 초연, 2005년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공연했고 2006년에는 한국 연극사상 처음으로 바비칸센터에서 공연하는 등 20여 개국에서 선보였다. 2012년 셰익스피어의 영혼으로 통하는 런던 글로브극장에 이 공연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셰익스피어 '한여름밤의 꿈'에서 모티브를 얻은 음악극 '미드썸머'를 선보였다. 양 연출과 예술의전당이 손잡고 유인촌·남윤호 부자가 출연한 셰익스피어의 '페리클레스'는 2015년 초연과 최근 재연에서 높은 객석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샘컴퍼니와 손잡고 문근영 박정민 주연으로 선보인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기도 하다.

공연계는 고 연출의 드라마틱한 성향과 양 연출의 미장센이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개·폐막식의 정체성에 부합한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앞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총연출 자리와 관련 끊임없이 잡음이 들려왔다. 지난해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이 총연출을 그만뒀고, 이후 패션디자이너 겸 공연 연출가인 정구호가 총연출로 임명됐지만 조직위 등과 갈등을 빚고 중간에 사퇴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송승환 총감독(PMC프로덕션 대표)이 공연계 연출가들을 물색해 양정웅 씨와 고선웅 씨를 총연출로 낙점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여성예술인연대 "성폭력 상담 상설기구 만들라" 성명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해 예술가들이 공식 성명서를 내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내 성폭력 상담 관련 상설기구 마련 등을 촉구했다.

예술계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여성예술인연대 AWA는 26일 "신진작가, 중견작가, 큐레이터, 기획자, 평론가 등 405명(23일 기준)이 '#예술계_내_성폭력' 성명서에 동참했다"며 "25일 오전 온라인 플랫폼에 성명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AWA는 "향후 성명서 서명 동참이 마무리되는대로 유관 기관에 전달할 것이며, 진행상황은 '여성예술인연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 서명은 오는 2017년 1월 11일 마감된다.

다음은 '예술계 성폭력 성명서' 전문이다.

2016년 10월 말 이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문제가 폭로의 형식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애초에 폭로자들의 발언이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까지도 예술계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의 심각성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성폭력 폭로사태로 우리 예술계의 구조적 모순과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 이를 변화의 계기로 삼는 공론의 장은 없는 상태이다.

우리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예술계의 성폭력 사례가 빙산의 일각임을 알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문화예술권력을 가진 기성세대가 침묵하는 모습을 보며 입장과 지위에 따른 현실 공감의 온도 차를 극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예술계는 성폭력을 포함한 부당한 권력의 과시에 대해 매우 낮은 수준의 대처를 보여줬다. 개인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힘을 견제하는 대신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논의와 가능성조차 억압하거나 무마시켜 온 것이다. 이러한 현실의 가장 큰 원인은 예술계 전반의 특수성과 취약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못해 온 것에 있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예술인 개인으로서의 인식과 적극적인 실천이 부족했음을 반성한다. 이제 더는 대답 없는 허공에 기대하지 않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가운데 예술의 참가치가 소통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므로 현실과 변화된 의식을 반영한 제도의 개선이 당장 이뤄져야 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 사실이 묵인되거나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인식의 변화는 예술계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이뤄낼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발 딛고 있는 공동체 속 실천을 계속 미룬다면 예술의 일상화, 사회적 함의의 예술을 말하는 것은 위선일지 모른다.

혼란한 시국에 발분해 광장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력할 것 같던 국민 각자가 가진 힘과 그로 인한 희망이었다.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추한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 또한, 그것을 바꿀 힘도 있다.

우리가 예술계에 시급히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에 성폭력 상담기구 상설을 요구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에 국가기금 수혜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의 의무 실시를 요구한다.

3. 모든 예술기관에 성폭력 비리와 관련된 채용 규정(심사위원 포함) 및 징계규정 강화를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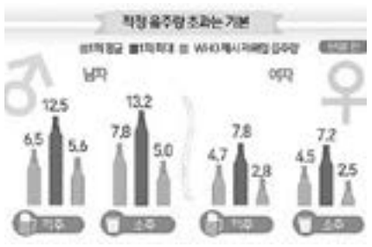
우리 모두는 예술계 내 모든 형태의 성폭력이 사라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뉴스1

“닥치고 술을 줄이세요”

건강, 소주 3잔 이하 적당

배 채우고 술 마시면
알코올 흡수 50% 감소

안주는 감·두부 찰떡궁합
물 충분히 마셔야



새해에는 건강해지겠다는 다짐이 샘물처럼 솟아나지만 실천이 어렵다. 생업전선에 뛰어든 직장인이라면 새해부터 어김없이 술자리가 이어지고 이를 마다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회식이 줄어든 자리엔 혼자서 술을 마시는 혼술이 대체하고 있다. 우리나라 20-40대 10명 중 6명은 혼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직장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김경수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도움말을 통해 건강한 2017년 정유년(丁酉年)을 맞기 위한 술자리 건강관리법을 알아본다.

▣공복엔 빨리 취해…술자리서 수시로 물 마시면 효과

술을 자주 마시면 위와 간에 부담을 줘 피부가 푸석해지고 숙면을 방해한다. 술자리를 피하기 어렵다면 술을 마시기 전에 간단한 우유나 치즈를 먹어두는 것이 좋다.

공복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위를 빨리 통과하고 소장에 흡수돼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음주 전에 저녁식사를 하거나 간단히 배를 채워 놓으면 알코올 흡수가 50%가량 감소해 덜 취한다.

술자리에선 가급적 대화를 많이 나누고 천천히 술을 마시기를 권한다. 중간중간 물을 마셔도 숙취 해소에 효과적이다. 술자리에서 물을 넉넉히 마시면 알코올이 물에 희석돼 덜 취할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숙취 증상인 탈수를 예방한다.

술을 섞어 마시는 일명 폭탄주는 빨리 취하고 간과 뇌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득이하게 폭탄주를 마시면 도수가 낮은 술을 선택한다.

안주는 적당히 먹되 감이나 두부 종류가 궁합이 잘 맞는다.

건강한 성인이 1시간 동안 분해하는 알코올량은 6g 정도다. 보통 소주 1병(360ml) 분량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10시간 넘게 걸린다. 하루에 마시는 주량은 남성 소주 3잔, 여성은 1.5잔 이하가 적당하다. 쓴맛을 없앤다며 탄산음료를 술과 섞어 마시면 숙취만 더 심해진다.

▣음주가무 성대에 부담…음주 후 3일은 금주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흥과 취기를 즐기는 한국형 음주문화는 성대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술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 대사 작용으로 인해 몸속 수분이 마르고 성대가 다치지 않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물질이 덜 분비한다. 음주 후 갈증을 느끼는 이유도 같은 이유로 성대 점막이 마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해장 식품은 콩나물이다. 그 뿌리에 아스파라긴산이 들어 있어 숙취 해소에 제격이다. 뿌리로 내려올수록 많다. 콩나물 머리엔 비타민 B1, 몸통엔 비타민C가 함유돼 있다. 북어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다. 짐승 피로 만든 선지는 흡수하기 쉬운 철분과 단백질이 풍부해 술독을 풀어준다.

김경수 교수는 “술을 마실 땐 안주를 풍부하게 먹고 전날 충분히 잠을 자야 한다”며 “주량에 맞게 천천히 조금씩 마시면 숙취로 고생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최유희 기자

노인성 질환자 장기요양 갱신…이제 하지 마세요

노인장기요양 제도 개선…
‘중증치매·중풍·뇌혈관질환’ 등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
장기요양 갱신조사 생략

내년부터 중증치매·중풍·뇌혈관성 질환 등 호전되기 쉽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갱신절차가 생략되는 등 노인장기요양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신의 기능 및 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차 갱신부터 조사 자체를 생략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최초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으면 △최초 판정 후 1년 △1차 갱신 후 1년 △2차 갱신 후 등급별 매 2-3년마다 갱신조사를 받도록 해왔다.

앞으로는 경증 치매노인(5등급)을 제외한 1-4등급자는 2차 갱신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 신체·인지·행동·간호·재활 등 심신상태에 영향을 주는인정조사 5개 항목을 확인해 기능상태 변화가 없을 경우에 갱신조사가 생략된다.

또 현행 인정유효기간도 1년씩 연장된다. 1차 갱신에서 직전 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경우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이 늘어난다. 5등급은 현행과 같이 2년이다.

이와 함께 갱신신청서 제출 절차도 간소화해 전화 등 유선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의사만 확인되면 신청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갱신절차 개선으로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거동불편 수급자가 주기적으로 갱신조사를 거쳐야 하는 불편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권 보장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하 기자

비알콜성지방간 있으면 대장용종 위험 높아

2003-2012년 삼성서울병원
수진자 2만6540명 분석 결과

비알콜성지방간을 진단받는 경우 대장용종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손희정·곽금연 교수 연구팀이 2003년에서 2012년 사이 삼성서울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수진자 2만6540명을 분석한 결과 비알콜성지방간을 진단받는 경우 대장내시경에서 대장용종이 동시에 발견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비알콜성지방간’이란 유의한 알콜 섭취(남자는 일주일에 소주 3병, 여자는 소주 2병) 없이 지방간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 과체중이나 복부비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의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들 건강검진 수진자 중 복부초음파에서 비알콜성지방간을 진단받은 사람은 모두 9501명으로 이 가운데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3608명(38%)이 대장용종을 진단받았다. 또 대장암을 포함한 진행성 대장용종이 발견된 환자도 263명(2.8%)에 달했다.

반면 비알콜성지방간이 없었던 수진자 1만7039명 중 대장용종과 진행성 대장용종이 확인된 경우는 각각 28.9%(4,921명)와 1.9%(325명)으로 비알콜성지방간이 있었던 수진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체 건강검진 수진자들을 나이, 성별, 흡연력, 음주력, 비만도, 대장암 가족력, 각종 대사성 질환 등 대장용종 발생에 영향을 미칠 모든 요인들로 보정했을 때 비알콜성지방간이 있는 수진자들에서 비알콜성지방간이 없는 수진자들에 비해 대장용종 및 진행성 대장용종의 상대위험도가 각각 1.10배와 1.21배에 달했다.

이와 함께 비알콜성지방간 중에서도 간섬유화 정도가 심한 경우 대장용종 및 진행성 대장용종의 위험도가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알콜성지방간 간섬유화 점수가 -1.455 이상인 그룹의 경우 그 미만인 그룹에 비해 대장용종 및 진행성 대장용종의 상대위험도가 각각 1.66배와 2.26배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비알콜성지방간이 특히 간섬유화 진행으로 이어질때 염증성 싸이토카인을 활성화하고 인슐린, 혹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를 증가시켜 대장용종 발생과 진행을 촉진시킨다고 분석했다.

손희정·곽금연 교수 연구팀은 “건강검진 등에서 비알콜성지방간이 확인되는 시점에 이미 대장용종이 발생해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비알콜성지방간은 간 뿐 아니라 대장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만큼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영양약물학과 치료 최근호에 게재됐다.

류재현 기자

“요새 누가 딸아들 가려 낳아요?” 낡은법에 산모들 ‘불만’

의료법상 32주 이후 태아
성별 고지 가능 “개정해야”

첫아이를 임신한 김혜진 씨(가명·34·서울 동대문구)는 아이의 성별을 24주에 알 수 있었다. 의학적으로 임신 14주 이후면 성별을 알 수 있지만 일찍이 다니고 있는 산부인과가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 몇 안되는 곳이라고 들어 따로 물어보지 않았다. 김씨는 24주 초음파 검사를 하는 중 아주 조심스럽게 성별을 물었다. 김 씨는 “빨강색을 좋아하겠네요”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지만 의사의 표정을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태아의 성별은 총 40주의 임신기간 중 32주 이후에나 ‘합법적’으로 알 수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줘서는 안된다. 이러한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은 1980년대 남아선호사상이 짙은 당시의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인데, 시대가 바뀐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둘째를 임신한 주안희씨(가명·30·경기 수원시)는 “요즘 성별을 안 알려주는 산부인과가 어디 있고 그런 곳을 부모들이 가겠냐”며 “어차피 알려줄 정보인데 내 아이의 성별을 왜 색깔로 묻고 답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기관들은 ‘색깔’과 ‘장난감의 종류’ 등을 빗대어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등 태아 성감별 금지조항이 지켜지지 않은지 오래다.

그럼에도 부모들이 성별을 조심스럽게 묻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은 처벌조항탓이다. 의료인은 32주전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1년 범위에서 의사 자격이 정지된다.

이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들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태아 성감별 금지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해당 조항은 과거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생겼는데 지금은 의료현장에서 그러한 경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 조항은 의사와 환자간 정보 교류를 막아 부모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산부인과 의사 역시 “병원 입장에서 부모는 고객이기 때문에 태아 성별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수 없다”며 “32주 후에야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곳은 고객이 많은 극히 일부의 산부인과”라고 말했다.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이 생긴 것은 1987년이다. 당시 남아선호사상이 뿌리 깊어 딸을 임신한 경우 낙태수술을 감행하는 부모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양성평등 의식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2015년 우리나라 출생아 성비 역시 여아 100명당 남아 105.3명 수준으로 정상범주다.

태아의 성별이 더이상 낙태수술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보건복지부의 ‘2015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 낙태수술을 직접 경험한 여성 43.2%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 뒤로는 ‘산모의 건강문제’가 16.3%, 경제적 사정 14.2%, ‘태아의 건강문제’ 14.2%, 주변의 시선 7.9%,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가 3.7% 순이었다.

복지부는 법 개정에 소극적인 상태다. 해당 조항을 삭제할 만큼의 사회적 요구가 있는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부모, 의료계뿐만 아니라 종교, 사회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일부 법을 지키지 않는 산부인과가 있다고 해서 법조항 자체가 무용지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유희 기자

곤충 요리 환자식단
수술환자 회복 효과 커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양팀·외과,
국내 첫 연구 결과 발표
단백질 섭취량 대조군 환자보다
1.5배 이상 많아…

갈색거저리(밀웜)으로 만든 곤충식품

곤충으로 요리된 환자식단이 열량과 단백질 섭취가 높아 수술 환자들의 회복을 돕는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나왔다. 곤충을 먹은 환자들은 일반 환자식을 먹은 경우보다 단백질 섭취가 1.5배 늘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양팀(김형미, 김성현)과 외과(박준성, 김종원, 강정현)는 수술 후 환자식으로 곤충식품을 제공하는 연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식용 곤충의 환자식 적용 가능성을 살핀 첫 사례다.

연구팀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위장관 수술을 받은 환자 34명(90%가 암 환자)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갈색거저리(밀웜)으로 만든 환자식(20명)과 기존의 환자식(14명)을 지난 8월 4일-11월 2일간 제공했다.

그 결과, 곤충식 환자의 경우 하루 평균 965㎉로 기존 환자식 열량 667㎉보다 300㎉ 가량 많은 열량을 섭취했다. 단백질 섭취량에서도 곤충식을 먹은 환자들이 평균 38.8g으로, 대조군 환자의 24.5g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지방도 각각 27.9g과 12.5g으로 차이를 보였다.

환자들의 체성분을 분석한 결과 환자식 섭취 후 체중 감소에서도 차이가 났다. 곤충식 환자들은 수술 후 체중 손실이 -1.0%으로 나타나 기존 식단 섭취 환자들 -2.7%보다 체중 손실이 덜했다.

뿐만 아니라 주로 골격과 근육으로 구성된 제지방량(FFM: Fat free mass)은 곤충식 환자에서 1.4% 증가한 반면, 대조군 환자에서는 오히려 3.5% 감소했다. 제지방량은 수술 후 합병증, 생존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김형미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양팀장은 “수술 후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식사 섭취가 중요하다”며, “특히 열량과 단백질을 요구량 대비 80% 이상 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식사의 구성 및 영양 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1일 단백질을 요구량의 80% 이상 섭취한 환자는 갈색거저리 환자식을 섭취한 20명 중 12명(60%), 기존의 환자식을 섭취한 14명 중 4명(29%)이었으며, 곤충식품을 먹은 후 이상 반응은 없었다.

뉴스1

KPGA 선수들 가장 많이 당한 부상은 허리와 목

선수촌병원 2년 간 데이터 분석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부상 부위는 허리와 목인 것으로 나왔다.

한국프로골프협회의 공식 지정병원인 선수촌병원은 2015년부터 KPGA 코리안투어의 매 대회 현장에 상주하며 'KPGA 피지오 서비스 센터(KPGA Physio Service Center)'를 운영했고, 최근 2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선수촌병원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에는 121명의 선수가 총 890회, 2016년에는 124명의 선수가 818차례 치료를 받았다.

신체 접촉이 격렬하지 않은 골프에서 부상이 많은 이유는 편측 운동이기 때문이다. 한 방향으로 고정된 스윙 동작은 반복될수록 허리와 등, 어깨와 손목 근육 등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경진 선수촌병원 재활원장은 "골프 선수의 가장 큰 부상 원인은 많은 연습량"이라며 "골프 스윙은 한쪽 근육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지속하다 보면 신체 근육의 좌 우 균형이 깨진다. 그렇게 되면 척추와 관절에 부담이 생기고 자연스레 부상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 KPGA 선수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허리와 목이었다. 2015년 선수들의 부상 부위 발생 빈도는 허리(20.6%), 목(18.6%), 등(15.3%), 어깨(12.0%) 순이었고 2016년에도 허리(26.5%), 목(13.4%), 어깨(13.4%), 등(8.6%)의 비율로 비슷했다.

한 원장은 "남자 선수의 경우 드라이브 거리를 늘리려다 보니 허리에 강한 압력이 가해졌고, 허리 근육이 지속적인 압력을 받아 통증이 생긴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6 KPGA 코리안투어'에서 제네시스 대상을 수상한 최진호(32·현대제철)는 시즌 내내 허리 통증에 시달렸고 2015 시즌 일본투어(JGTO) 상금왕과 대상을 거머쥔 김경태(30·신한금융그룹)도 올해 초반 허리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은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고 회복하면 잔부상을 안고 있을 때 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경진 재활원장은 아마추어 골퍼들의 부상 방지 요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온이 낮은 계절에는 근육이 수축돼 있어 부상을 입기 쉽다. 라운드를 하기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온도를 높여줘야 한다"면서 "첫 홀과 마지막 홀은 카트를 타지 말고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을 권장한다. 자연스럽게 몸을 데우고 식혀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겨울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뉴스1

FA 시장 폐장 직전… 미계약 4人 무소식

FA 자격 얻은 15명
11명 계약 마무리
4명 선수 소식 없어

프로야구 자유계약(FA) 시장이 폐장 직전이다.

2016 시즌이 끝난 후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모두 15명. 이 가운데 11명이 계약을 마무리했고 4명의 선수는 아직 소식이 없다.

미 계약 선수는 LG트윈스 정성훈(36), kt 위즈 이진영(36), NC다이노스 조영훈(34), 롯데 자이언츠의 황재균(29) 등이다.

정성훈은 프로데뷔 후 이번이 세번째 FA다. 그는 올 시즌 126경기에 출장해 타율 0.322 6홈런 64타점을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앞서 지난 23일 팀 동료이자 동갑내기인 봉중근이 2년 총액 15억 원에 LG와 다시 손을 잡았다. 이 계약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세번째 FA 자격을 취득한 이진영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계약 기간을 두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선수는 3-4년의 기간을, 구단은 2년 계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영은 올 시즌 115경기에 나서 타율 0.332 10홈런 72타점을 기록하며 녹슬지 않는 실력을 보여줬다.

kt 관계자는 "이진영과 구단 모두 서로 함께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앞으로 계속된 만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영훈은 첫 FA다. NC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30대 중반의 나이와 주전 선수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계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 시즌 조영훈은 주로 대타로 출전했다. 109경기에 나서 타율 0.335 5홈런 35타점을 기록했다. 다른 FA 선수들에 비해 만족스러운 제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훈은 구단의 조건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앞서 은퇴를 선언한 팀 동료 용덕한(35)과 같은 선택을 할지 고민중이다.

황재균은 다른 FA 선수들보다 여유롭다. 황재균의 시즌성적은 타율 0.335, 27홈런, 113타점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황재균은 우선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1순위로 정했다. 롯데는 해외 진출 여부가 결정된 뒤에 본격적으로 협상을 한다는 방침이다.

황재균이 믿는 구석은 또 있다. kt다. kt는 이미 황재균과 만나 교감을 가졌다. kt는 외부 수혈을 통해 내년 시즌 꼴찌 수모에서 벗어나겠다는 각오다. 그만큼 황재균의 카드는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롯데와 kt의 영입전 가세로 시간이 지날수록 몸값이 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KIA 타이거즈가 최형우(33)와 맺는 역대 FA 최고액인 4년 1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KBO에 따르면 이번 FA 이적시장은 내년 1월15일 마감된다. 이 기간에 계약을 하지 못하면 KBO에 자유계약선수로 공시가 되며 국내외 모든 구단과 협상을 할 수 있다. 뉴스1

전반기 1위 현대캐피탈… 문성민 고공비행 주도

문성민, 18경기 치른 현재
348점 득점 부문 6위
국내 선수 중 단연 1위

현대캐피탈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오레올 까메호가 팀을 떠나면서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서서히 지난 시즌의 위용을 뽐어내고 있다. 전반기 1위를 확정했다.

중심에는 문성민이 있다. 외국인 선수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라이트 포지션에 서는 그는 연일 강타를 뽐내며 팀의 고공비행을 주도하고 있다.

문성민의 활약은 기록으로 쉽게 증명된다. 문성민은 18경기를 치른 현재 348점으로 득점 부문 6위다. 국내 선수 중 단연 1위다. 외국인 선수인 팀 동료 톤(267점)보다는 81점이나 많다.

문성민이 국내 최고 공격수의 명성을 입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한 시즌 평균 20득점을 넘길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평균 20득점은 국내 선수들에게는 '마의 벽'이나 다름없다. 2005년 프로 출범 이후 이 기록을 달성한 선수는 3명 뿐이다.

이중 외국인 선수가 뛰지 않았던 2005시즌의 이경수(평균 27.42득점)를 제외하면 평균 20득점을 넘긴 선수는 2011-2012시즌 김요한(KB손해보험·평균 23.14점)과 2013-2014시즌 전광인(한국전력·평균 20.53점)이 유이하다.

토종 공격수들의 득점 감소는 외국인 선수들이 공격 대부분을 책임졌던 리그 트렌드가 자리매김하면서 그들의 비중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1-2012시즌 LIG손해보험(KB손해보험 전신)은 밀란 페피치와 이경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자연스레 큰 공격을 때릴 수 있는 김요한에게 공이 쏠렸다. 김요한이 분전했지만 그해 LIG손해보험은 11승25패(승점 33)로 6위에 그쳤다.

2013-2014시즌 전광인의 처지도 김요한과 비슷했다. 밀로스 쿨라피치가 수준 이하의 기량을 선보인 탓에 전광인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뒤늦게 레안드로 비소토가 합류했지만 한국전력은 반등에 실패한 채 최하위로 시즌을 마쳤다.

문성민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르다. 톤의 지원이 떨어지면서 공격 기회가 늘어난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두 선수와는 달리 팀 성적이 정상권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분명 나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문성민의 경기당 평균 득점은 19.33점. 상대팀의 집중 견제와 체력 저하 등의 변수를 넘어 지금의 좋은 페이스를 유지할 경우 통산 4번째 평균 20점 이상 선수의 탄생은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다. 뉴시스

"행복은 성적순이 아냐" 광주팬 행복지수 1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었다. K리그 클래식에서 가장 행복한 팬들은 우승을 차지한 FC서울도, 아시아를 정복한 전북 현대도 아닌 광주FC 팬들로 조사됐다.

26일 한국스포츠경제가 글로벌 정보분석기업 닐슨코리아와 K리그 팬들이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광주팬들이 1위를 차지했다.

광주팬들은 축구행복지수 항목 7개에 대한 답변을 10점 만점(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4, 보통이다 6, 그렇다 8, 매우 그렇다 10)으로 환산한 결과, 행복지수가 6.36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가 올 시즌 8위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색적인 결과다. 광주팬들은 응원팀의 성적보다는 축구 자체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승팀 FC서울 팬들이 6.29로 뒤를 이었고, 준우승팀 전북 현대는 5.86으로 공동 8위에 머물렀다. 롤러 코스터 시즌을 보냈던 수원 삼성의 팬들은 5.7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사실은 '올해 응원팀 때문에 행복했던 이유' 항목에서도 잘 나타난다.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상황에 관계 없이 열심히 하는 모습(47.9%)'에 가장 큰 행복감을 느꼈다. '많은 승리(14.5%)'와 '많은 득점(10.9%)'에 행복해 하는 팬은 10명 중 1명꼴에 그쳤다.

축구장에서 가장 즐겨 먹는 간식은 치킨이 55.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와는 별개로 팬들은 '다양한 먹거리 판매(30.1%)', '구매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림(22.3%)' 등의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고의 스타는 이동국(37·전북)이었다. 선수와 관련된 5개 항목에서 모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이동국은 '응원팀에서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한 선수'에서 40표, '응원팀을 가장 힘들게 한 상대팀 선수'에서 90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사인볼을 받고 싶은 선수(218표)'와 'K리그에서 가장 잘 생겼다고 생각하는 선수(207표)'는 물론 30대 후반임에도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선수'에서도 정상을 밟았다. 뉴시스

오늘을 … 생각한다

■ 차욱환의 세상이야기

SPC그룹의 '달걀 사재기'

차 욱 환

본지 주필

파리바게뜨 파라크라상 던킨도너츠 등을 소유한 식품 전문업체 SPC(회장 허영인)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전 국민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트 등에서 계란을 무더기로 사들인 것이 드러나 따가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21일 YTN에 따르면 "최근 AI로 전국 곳곳에서 '계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제빵업체인 SPC 직원들이 마트를 돌며 계란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돈이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마 참말 더럽게 번다는 생각이 든다. 돈의 노예가 된 셈이 아닌가.

YTN이 보도한 영상엔 SPC그룹 양재동 사옥 지하주차장에서 직원들이 계란을 꺼내 화물차로 옮겨싣는 장면이 담겨있다. 계란 수백판을 옮기기 위해 지게차까지 사용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됐다. 심지어 화물차 기사는 "200판 좀 넘는 것 같다"는 말까지 했다.

그리고 이 화물차는 곧바로 경기도 성남 SPC 제빵공장으로 향했다. 공장 직원은 주차장에 쌓여있던 계란이 그대로 빵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고 했다. 공장 직원은 '확인증'까지 써주며 수량과 금액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또 공장 관계자는 "영업에서 계속 오고, 구매에서 오고, 사원들이 사온 것이다. 전체 라인 전 직원 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파악된 계란은 이틀 동안 500판 정도였다.

회사차원의 조직적인 사재기 현장이 들통난 것이다. 이 장면을 보고 사장이나 회장은 이것을 '애사심의 발로'라고 흐뭇해 할 것인가.

사상 최악의 AI 피해로 계란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대형 마트에서 조차 1인당 구매한도를 1판으로 제한할 정도로 곳곳에서 계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비상상황이다. 영세규모의 제빵-제과공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SPC가 직원들을 동원해 계란 사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SPC 측은 "일부 부서 직원들이 계란 품귀를 걱정해 애사심에서 한 행동이며 판매용 빵 제조가 아니라 제빵 교육과 연구개발에만 쓰였다"며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 또한 예상된 시나리오지만 비겁하다.

때 아닌 달걀 대란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창궐한 때문이다. 지난 달 16일에 첫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가 23일 자정을 기점으로 2500만 마리가 넘는 닭이 살처분됐고 산란계가 27%나 포함되면서 달걀 품귀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달걀 공급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전달 대비 30% 가까이 치솟았다. 대형마트들은 '1인 1판'으로 판매를 제한하고, 식당에선 달걀 반찬이 사라졌다. 그 와중에 전 직원이 나서서 달걀을 사들이는 모습이 방송사 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이에 대해 SPC그룹은 "원재료인 달걀 부족을 걱정하는 직원들이 회식비를 아껴 주변 마트에서 달걀을 사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SBS가 '전사 계란 수급 캠페인 안내'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을 입수하면서 낯부끄러운 거짓말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 문건을 보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계란 구입 캠페인을 시행하니 적극 동참해달라"고 나와 있다. 또 달걀 구입처와 결제 방법, 수집 장소·시간, 영수증 처리 절차 등이 도표와 함께 상세히 설명돼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문건을 준비한 것은 누가 얼마나 애사심을 발휘했는지 고과평가 자료로 삼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아니라면 그런 문서가 왜 필요하겠는가.

문건이 공개되자 SPC그룹은 "해당 부서에서 문건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부서가 시행하던 중 내부 이견 때문에 중단했다"고 말을 바꿨다. 꼬리를 미처 감추지 못한 뻔한 거짓말이다.

기업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이윤임은 당연하지만 모든 일엔 금도라는 게 있다. 아무리 개같이 벌어 정승처럼 쓰는 것이 돈이라지만 개가 이런 짓을 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SPC그룹은 연간 매출액이 5조 원이 넘는 재벌, 빵의 본고장인 파리를 비롯해 해외 매장만 200여 개에 이른다는 파리바게뜨의 명성을 한 순간에 무너뜨린 것이 안타깝다.

■ 나의제언

부동산 세제개편의 당위성

정 형 식

대구 서구 세무과 세무담당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가격의 폭등으로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또한 불경기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해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집값마저 폭등해 주택을 구매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삼포세대라 스스로를 자조하고 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촛불민심이 거대한 규모로 확대된 데는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도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목된다.

최근의 아파트 가격 폭등은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을 한 바퀴 순회하더니 바야흐로 서울, 경기 수도권의 가격을 폭등시키는 등 투기적 행태로까지 변질되고 있다. 서울 강남, 부산 해운대 등 전국 주요지역은 분양권 프리미엄이 몇 개월 사이 몇 억이 올랐다는 둥 신문지상의 보도가 연일 있다. 서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월급쟁이, 자영업자들이 1억 원을 저축하려면 맞벌이를 해도 몇 년 아니 십 여년을 허리띠를 졸라매야 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아파트 분양열기에 뛰어들고자 전 국민이 아파트 청약통장을 들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한 가계대출의 폭증세로 국가경제의 위험성을 예고하는 IMF 등 해외기관의 경고도 여러 차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소 늦었지만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분양권 열기가 다소 수그러들고 지방 과열지역도 진정 기미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하겠다.

부동산 폭등의 시대에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거래세인 취득세는 없거나 현저하게 낮은 대신에 보유세인 재산세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1가구 1주택에는 현행의 낮은 재산세를 유지하는 대신, 2주택부터는 세율체계를 높여서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보다 높은 재산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러한 재산세의 과세강화를 전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급격한 매도물량의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락 등을 야기하고 이는 국가기간산업은 물론 서민층이 다수인 업종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폐지한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 중과세율도 다시 논의돼야 할 것이다.

아파트분양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근로소득의 수 십배가 넘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부동산 한탕주의를 만연케하는 건설성장 위주의 국가정책 기조를 대변화시켜 근면성실하게 일하면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주택 한 채는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진정한 복지국가,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社 說

독감까지 대유행…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전국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이어 계절 인플루엔자(독감)까지 대유행하고 있다. 우선 발병 추이가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17일(제51주) 전체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61.8명으로 집계됐다. 전주에 비하면 무려 77%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우려스런 대목은 초·중·고 학생연령인 7-18세의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숫자로 1000명당 153명에 달했다. 전주와 비교하면 42% 급증한 것으로 1997년 인플루엔자 감시체계를 도입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독감환자 급증 배후에 정부당국의 태만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해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고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정신줄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독감예방접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접종가격이 저렴한 보건소의 경우는 이미 지난 10월 말 일찌감치 백신을 소진했고, 일부 지방의 민간의료기관들은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지역별 수급차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탓이다.

대구 수성구의 서 모 씨가 대표적인 피해자다. 최근 독감유행 소식에 중학생 자녀와 함께 동네 병원을 3군데나 전전한 끝에 겨우 백신을 맞았다. 서 씨는 "아이 친구들이 워낙 많이 독감에 걸려 집 근처 병원을 찾았는데 없다고 해 3번째 병원에서 4만 원씩 주고 4가 백신을 맞았다"고 했다.

대구지역 보건소와 병의원 등 예방접종 기관에 따르면 최근 독감이 대유행하면서 백신 부족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역 최대 독감백신 접종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엔 20일 오후 현재 3가 백신은 200개 남았고 20개 남은 4가 백신은 21일 동났다. 4가 백신을 추가 주문했지만 언제 들어올지 장담을 못하고 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도 정부당국의 대응이 너무 늦은 것도 실책이다. 학령기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의 숫자는 이미 11월 셋째 주에 유행기준을 넘었지만,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 8일이 돼서다. 이는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특정 연령대와 지역과는 무관하게 전체 환자수를 기준 삼았을뿐 학생집단을 간과해 한참 확산된 뒤에야 주의보가 나간 것이니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기'다. 내년부터라도 특정 연령대에 맞는 경보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2016 대구사회적경제 큰 성과 거뒀다

대구시의 사회적경제 육성책이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시는 그동안 사회적기업의 입장에 서서 믿음과 신뢰를 통한 소통과 협치행정을 추진했고, 대구만의 특색 있는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해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의 매출액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다. 전국의 공공기관 중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최우수공공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는 등 올 한해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사회적경제의 목적은 소수의 개인이 아닌 공동체 보편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윤 추구보다는 구성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자본이 아닌 노동중심으로 수익을 배분하게 된다. 사회적경제활동의 형태로는 대표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과 협동조합도 여기에 속한다.

올 한해 추진한 주요사업들의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시정의 대표적인 민·관 협치 모델인 '대구 사회적경제 민·관 정책협의회'가 주축이 돼 '대구 사회적경제 5개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고, 기업의 설립·경영·마케팅 등 원스톱 성장지원 기능을 수행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개소했으며,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도 시행하는 등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에 힘쓴 한 해였다.

더불어 사회적경제 대학원, 사회적기업 리더과정 등을 운영해 사회적경제 리더 185명을 양성했고, 박람회와 중고생 캠프 등을 통한 시민홍보 및 가치 확산, 쪽방촌 지원, 서문시장과 함께하는 장터, 김장나눔 행사, 초등교과서 수록 등 사회적경제가 시민생활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한 것도 주요 성과다.

특히, 사회적기업제품 우선 구매율 및 착한소비 확대로 10월 말 공공구매액이 88억 원으로 지난해 연말 47억 원 대비 2배에 가깝다. 사회적경제기업도 사회적기업 10, 협동조합 100, 마을기업 5를 신규로 설립해 양적성장도 눈부시다.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지역의 청년 마을기업인 '내 마음은 콩밭 협동조합'이 최우수상을 수상해 작년에 이어 대구마을기업이 2년 연속 최우수 마을기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둔 것도 그런 실적이 뒷받침한 것이다. 새해 주요 과제는 최대 애로사항인 판매여건 개선, 판로지원 시스템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여 민간주도의 사회적경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구시와 사회적기업의 공동과제로 삼아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일보 '독자의 가슴' 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 www.dgy.co.kr 전자우편 : dgynews@daum.net

발행인 정주필 | 편집인·편집국장 최학봉 | 주필 차욱환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8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북도, '혁신도시 드림모아 프로젝트' 본궤도 진입

전국 최초 도-시군-공공기관 협업 프로젝트, 6개 사업 국비 433억 확보
종자·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집중육성
북부권 국가산단 유치로 연결 노력

경북도가 혁신도시 이전 12개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드림모아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지난 2014년 말 시작된 '드림모아 프로젝트'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공공기관 간 협력 모델로 주목받아 왔으며, 최근 구체적 결실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비 확보액만 6개 사업에 433억 원이다.

특히, △구제역백신연구소 234억 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290억 원 △구제역백신제조시설 690억 원 △첨단자동차기술연구소·교육원 240억 원 등 4개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다.

총 234억 원이 투자된 '구제역백신연구소'는 지난해 말 완공돼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국가 종자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제종자생명센터'는 지금까지 전체 사업비의 절반인 151억 원을 확보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의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국비 24억 원이 반영됐고, '첨단자동차기술연구소·교육원' 건립사업도 내년에 실시설계비 10억 원이 확보돼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도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이 확정된 이후, 관련 기업군을 타깃으로 유치에 힘을 쏟아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코센 등 7개 기업이 입주를 마쳤고 공공기관 등의 지역 인재 채용도 670여 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도시가 빠르게 정착되면서 지난해 말 9234명이었던 혁신도시 인구도 올해 9월 기준 1만5000여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에서는 이러한 드림모아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반으로 혁신도시권과 도청신도시권 간의 연계를 통한 북부권 전체의 발전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특히, 종자·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도에서는 혁신도시에 입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소와 도청신도시권의 SK케미칼,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국제백신연구소(IVI) 분원 등의 집적된 자산을 연계 활용해 경북 북부권을 국가 백신산업의 메카로 키워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산업동물 약품 개발과 백신 생산 전문임상시설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 바이오 산업 동물지원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립종자원 등과 연계한 1000억 원 규모의 '백두대간 종자증식센터' 건립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역 특화산업 발전 전략과 기반 조성도 순조롭다

최근 영주를 중심으로 소재, 베어링 산업이 특화되고 있으며,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철도 등의 SOC망도 착착 준비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청사진이 착실하게 진행된다면 그간 경북이 추진해 온 4대 권역별 발전전략이 구체화됨은 물론, 그간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국가산단 유치 등을 통해 북부권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혁신도시와 도청 신도시의 성공적 정착으로 북부권에 새로운 성장모멘텀이 생겨나고 있다"며 "앞으로 종자·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해 나가면서, 권역별 특성을 살린 특화산업을 일으키고,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등 경북 북부권에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2016 경북도 중소기업대상 시상식' 가져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창출 주도한 9개 중소기업 시상
㈜신라공업, 종합대상 수상

경북도는 26일 오후 도청 다목적홀에서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한 9개 중소기업에 '경북도 중소기업대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2016 경북도 중소기업대상' 시상식에서는 △종합대상 ㈜신라공업(대표이사 최병선) △경영혁신부문 대상 ㈜복주(대표이사 권귀순) △기술개발부문 대상 ㈜전우정밀(대표이사 김동진) △고용창출부문 대상 에이에프더블류㈜(대표이사 진정아) △여성부문 대상 ㈜유엔티엔지니어링(대표 박영순)이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현우정밀㈜(대표이사 배영일), 삼우티시에스주㈜(대표이사 김준현), ㈜경안플랜트(대표이사 김주환), ㈜기산이엔지(대표이사 김은기)가 수상했다.

종합대상을 수상한 ㈜신라공업(대표이사 최병선)은 2%이상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 워터펌프용 일렉트릭 코일아세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기술혁신을 통해 최근 특허 6건, 디자인등록 3건을 획득했으며 2015년 읍천공장을 신축하는 등 지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는 추천된 중소기업에 대해 서류심사·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와 재무건실도, 산업재해율, 공정거래위반, 국세·지방세체납, 환경법위반 등을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고 지난 11월 28일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에서 9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수상업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3억 원→5억 원), 기술개발 및 마케팅지원사업 등 도 시책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되며, 지방세(3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북도 중소기업대상'은 매년 경영혁신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업성장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중소기업에게 경북도와 매일신문이 공동 시상하는 가장 권위 있고 명예로운 상으로 199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1997년부터 매일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24회째를 맞았다.

그간 도내 241여개의 우수한 업체들이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했으며, 수상기업들은 경북형 강소기업을 넘어 월드클래스300기업·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용구 기자

경북도, 낙후 도심지역 도시개발사업 적극 추진

칠곡 북삼지구 실시계획 승인,
구미 사곡·영천 완산지구 착공
7개 시·군 총 23개 지구, 사업비
1조1375억, 부지 793만9천㎡ 조성

경북도는 낙후된 도심지역 개발과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칠곡 북삼지구 등 7개 시·군 23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791만㎡, 총 사업비 1조1290억 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구역으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 등의 기능을 가진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추진 절차로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나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제안하고 시장·군수가 입안해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최종 결정하게 되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도시 시장인 포항시장은 직접 지정 할 수 있다.

올해 경북도 관내 주요 도시개발사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12일 칠곡 북삼지구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79만2907㎡의 부지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돼 칠곡 북부지역의 도시개발이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승인된 구미 사곡지구(14만3664㎡)는 경부고속도로 IC와 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해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지대이면서 고물상이 난립하는 등 구미 도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었으며, 영천 완산지구(17만7954㎡)는 2000년 군 부대 이전 후 16년간 빈터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민원이 많은 지역이었으나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조합이 환지방식으로 올해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게 됨에 따라 도심의 낙후지역 개발과 도시미관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자본과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어서 예산 부족으로 낙후 도심의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로 방치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정비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진 기자

경북도, 2016년도 추계도로정비 우수기관 선정

경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전국 추계도로정비 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지원금 5000만 원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도는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춘계·추계 2회에 걸쳐 지방도 49개 노선 3011km에 대한 도로정비를 실시해 오고 있다.

중점 정비사항으로는 포장파손부위 정비, 낙석·산산태 위험지구 정비, 퇴적토 제거 및 세굴부위 정비, 도로표지 정비, 겨울철 도로제설종합대책 수립, 불법점용 시설물정비, 도로변 제초작업 및 청소 등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달 여름철 태풍 등으로 파손 및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제설자재와 장비를 점검하는 등 각 분야별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 실시했다.

경북도는 10가지 평가항목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 우수기관 표창 및 상사업비 5000만 원을 수상했으며, 상사업비로 도내 지방도 중 차선도색이 시급한 구간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김용구 기자